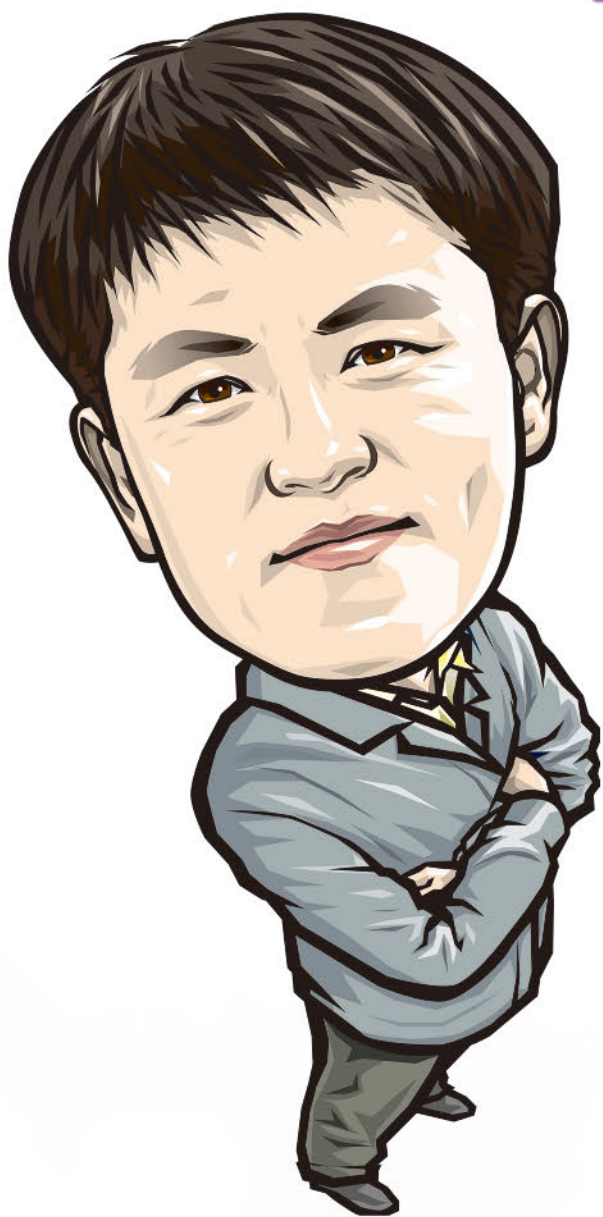


ECONET W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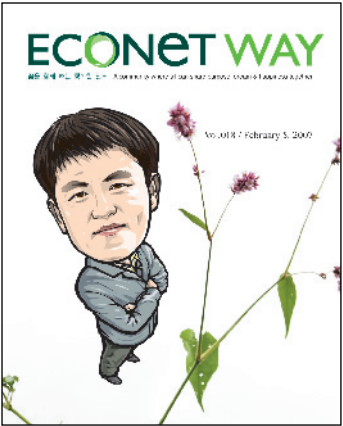
꿈을 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 & happiness together

Vol.018 / February 5, 2007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유니젠 한국 생리활성검정팀의 도선길 수석연구원입니다.

Presenting February's "Exemplary Econetian": Principal Researcher Seongil Do of Unigen Korea's Bioassay Discovery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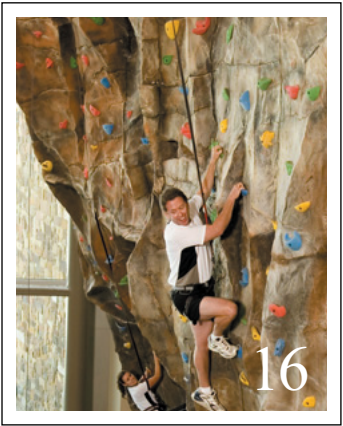


Cover Story

사진 김종민 작가 캐리커처 장영석
유니젠 러시아 농장 주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사진과
이 달의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으로 선정된 도선길 박사님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담았다.

Photo by Jongmin Kim
Caricature by Yeongseok Jang

The cover features a photograph of indigenous
wildflowers growing around Unigen's Russia
farm and a caricature of Dr. Seongil Do, who
has been selected as this issue's "Exemplary
Econetian."



ECONET Special

- 02 (주)남양의 새 브랜드 NatureTech • 사람과 자연 그리고 과학의 어울림
- 04 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다시보기 • 우리는 알로에를 파는 게 아니다
- 10 지식경영 이야기 • 지식경영,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 14 웰니스 칼럼 • 웰니스?

ECONETIAN

- 18 자랑스러운 에코네시안 •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 22 고고우리부서 • 에코넷의 마케팅을 이끄는 사람들
- 28 초대석 • 알로콧 미국 CEO 피터 해퍼만
- 32 우체통 • 유니베라 미국 아메드 버살리



Culture & Life

- 36 Special Healthy Food •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음(eum)
- 40 추천도서 • '말리와 나'

Info

- 42 헤드라인 뉴스 •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유비콧 농장으로 이전
- 46 ECONET News Network • 社告 • ECONET 자회사 소식
- 70 에코넷 사진컨테스트
- 74 퀴즈! 퀴즈!
- 75 함께 만드는 에코넷웨이



ECONET Special

- 03 NatureTech, New Brand Name for Namyang Company
• Human, Nature, and Science in Harmony
- 07 Review of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 We Are Not Peddling Aloe
- 12 Knowledge Management Story • Knowledge Management: What Is It All About?
- 16 Wellness Column • What is Wellness?

ECONETIAN

- 20 Exemplary ECONETian • A Beautiful Challenge for Life
- 22 Go! Go! Our Division • Marketers Who Lead ECONET
- 30 Special Guest • Peter Hafermann, CEO, Aloecorp USA
- 34 A Postbox • Ahmed Bersali, Univera USA

Culture & Life

- 38 Special Healthy Food
• Introducing the Italian Restaurant Eum, a Place for All ECONETians
- 41 Recommended Books • 'Marley & Me'

Info

- 44 Headline News
• Relocation of National Hero Ahn Junggeun's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to Ubicom Farm
- 46 ECONET News Network • Announcement • ECONET Subsidiary News
- 70 ECONET Photo Contest
- 74 Quiz! Quiz!
- 75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사람과 자연 그리고 과학의 어울림



글 이경실, 디자인 실장, (주)메타브랜딩

(주)남양의 새로운 마스터 브랜드(Master Brand)로 태어나는 ‘NatureTech’은 천연물 제조에 있어 앞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브랜드 네임이다. ‘Nature’와 ‘Tech’이라는 쉬운 단어의 합성어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업(業)의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 주요 비즈니스 타깃인 B2B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뛰어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NatureTech’의 비주얼 아이덴티티(Visual Identity) 역시 비즈니스 타깃을 고려한 전략에 기초한다. 친근함 또는 자연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하였다. ‘Nature’ 위에 표현된 ‘The TRI-Cell’은 자연, 과학, 인간을 대표한다. 특히 가운데 솟아있는 Cell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과학의 비중을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고객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매개자 역할(Innovative Connector)로서 의지를 표현한다. 우수한 제품력, R&D,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로 끊임없이 고객과 소비자의 요구(Needs)에 한 발 앞선 혁신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시각화하였다. 색상조합에 있어서도 자연과 과학, 또는 창의적인 감수성과 냉철한 이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린과 블루로 표현하여 자칫 차갑게 보일 수 있는 컬러 아이덴티티를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NatureTech’의 브랜드 목표는 에코넷의 천연물 제조 및 가공 부문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에코넷을 넘어선 세계 천연물 시장에서의 OEM/ODM 전문 기업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유니베라를 비롯하여 에코넷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과 대내적으로는

에코넷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다소 상충적인 브랜드 역할을 현명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런칭하는 ‘NatureTech’은 공식적으로는 기본 그래픽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에코넷 내부고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에코네시안이라는 유대감을 강조하는 좀 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향후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NatureTech’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하여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면 ‘NatureTech’은 건강한 브랜드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Human, Nature, and Science in Harmony



By Kate Lee, Design Director, Meta Branding

‘NatureTech,’ the name of Namyang Corp’s newly-launching master brand, clearly expresses the company’s status as a world leader with advanced knowledge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manufacture of natural botanicals. Combining the two simple words ‘nature’ and ‘tech,’ the brand name accurately conveys the character and content of our business without the aid of additional explication. The name’s self-explanatory composition renders it highly efficient for communication in B2B situations, which constitute our target clientele.

NatureTech’s visual identity is also based on a strategy designed with B2B clientele in mind. It aims primarily at communicating the image of a professional, specialized, and trustworthy company in the field of natural botanicals, rather than a more generalized image of nature or affinity. The ‘TRI-Cell’ located over ‘Nature’ represents the triad of nature, science, and humans. In particular, the centermost ‘Cell’ symbolical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cience as a link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as well as expressing the intent to serve as an ‘Innovative Connector’ linking clients and consumers. The logo visualizes NatureTech’s dedication to meeting the needs of clients and consumers through innovation that always stays one step ahead of the competition, via outstanding product quality, R&D, and proactive customer service. The juxtaposition of green and blue-colors that frequently symbolize nature and science, respectively, or creative sensibility and coolheaded rationality-expresses a harmonious color identity while avoiding the impression of coldness.

NatureTech’s brand objective is not only to take on the manufacture and processing of natural botanicals for the ECONET, but also to develop beyond the ECONET into a specialized corporate brand for OEM/ODM in the worldwide botanicals market. Therefore, NatureTech’s main challenge will be to wisely fulfill the somewhat contradictory role of establishing an external image that stands independently from Univera and the ECONET while cementing its place internally as an important axis of the ECONET. Accordingly, the newly-launching brand requires a more flexible mode of management: on an official level, it must adhere to the basic graphic guidelines, while at the same time underscoring a sense of solidarity as ECONETians in communications with clients within the ECONET. In future, if we continually check and monitor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flexibly adjust the level of communication in consideration of NatureTech’s brand recognition, NatureTech is sure to grow into a healthy and robust brand.

“우리는 알로에를 파는 게 아닙니다.”

유니베라 한국에서는 고(故) 청강 이연호 회장님의 10주기를 맞이하여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이라는 평전을 발행하게 되었고, 해외에 있는 우리 에코네시안 여러분들께도 이연호 회장님께서 창업철학을 바탕으로 세상과 인류를 위해 인내와 포용으로 경청하고 몸소 실천하셨던 삶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기 뭐꼬... 지대로 청소한 거 맞나?”

연호의 목소리가 공장 안을 찌렁찌렁 울리고 있었다.

“신대리, 니 이리 와봐라.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고, 내 몇 번이나 더 얘기해야 알아 들었나? 이제 귀에 딱지 앉을 때도 안됐나. 우리는 탄 기 아이고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재원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를 하는데도 그게... 아무래도 화장실이다 보니까.....”

“뭐? 화장실은 원래 더러워도 된다고 누가 그카대?”

출근하자마자 예고 없이 공장의 청결상태를 점검하러 나섰던 연호는 물이 새는 직원 화장실을 열어보고는 불같이 성을 냈다. 재원은 손수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 바닥의 물

기를 닦아냈다. 이때만큼은 변명도, 대꾸도 먹히지 않았다. 다른 건 몰라도 절약과 청결문제에 관한 한, 토를 단다는 건 연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다. 멀쩡한 종이가 한 장이라도 버려져 있거나 사람 없는 사무실에 전깃불이 켜져 있을 때, 자칫 자재창고나 생산라인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지 못할 때, 연호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불호령이 떨어졌다. 언제나 신경 써서 한다고 했건만 직원 화장실 물통에 틈이 생겼던 모양이었다. 재원이 걸레질을 하는 걸 보고 연호가 조금 누그러진 투로 말했다.

“요즘 회사가 쪼매 일어난다고 기강이 해이해지면 안되는기라.”

“예.....”

재원은 연호가 자신에게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소한 문제로 사장이 말단 직원한테 큰소리를 내면 그 이유를 헤아리기도 전에 주눅부터 들게 뻔했다. 그래서 연호는 항상 들으란 듯이, 병관이나 재원등 흥허물없는 관리직 사원들만 본보기로 야단을 치곤 했던 것이다.

연호의 기습 점검은 화장실과 창고, 쓰레기장과 공장 구석구석까지 이어졌다. 손가락으로 공장의 창틀 구석구석, 계단 난간 손잡이까지 살살이 확인하고 난 뒤에야 연호는 회의실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오늘 회의의 안전과 각 부서별 보고서가 올려져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부회장 자리를 계속 맡게 되셨다면서요?”

이승환 부장이 이번에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정기총회에서 연호가 부회장으로 재선임된 것을 알고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그저는 축하받을 일도 아임니더. 내는 탄 거 말고 우리 남양알로에가 잘되서 담배 한 개피라도 얻어 퍼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양비철을 정리하고 만든 동양주택의 입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부동산경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연호가 지은 연립주택은 성공적으로 분양되었고, 거기서 올리는 수입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 비하면 남양알로에의 수익은 아직 보잘 것이 없었다. 영업이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익금이 나는 족족 고스란히 재투자에 쏟아 부어야 하는 판이었다. 주변에서는 황금알 낳는 주택사업에나 전념할 것이지 왜 돈 안되는 알로에사업에 그렇게 매달리냐며 속 모르는 소리들을 해댔다. 그러나 사업이 단순히 돈 벌이를 위해 하는 건 아니라는 게, 연호의 지론이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라고, 기업가는 이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라고들 말하지만, 사람이 한평생을 걸고 하는 일에 어찌 이익만이 미덕이란 말인가. 기업가도 사람이다.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한다. 스스로 일을 통해 느끼는 보람,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는 의미. 그런 뿌듯함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 주택사업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도, 거기서 인생을

걸고 매달릴 만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알로예를 통해 사업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자신은 얼마나 행복한 사업가인가, 연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럼 상반기 신제품 개발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병관을 연호가 제지했다. 내심 짝이는 게 있어 서인지 간부들 모두가 움찔했다.



“아침 일찍부터 큰소릴 내서 안됐소. 관리파트 사무실을 제일빌딩에 따로 옮겨놓고 나니 여기 부텍사 공장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 오늘 꼼꼼히 함 둘러보니까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모토가 뭐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인생을 즐기게 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알로예를 파는 기 아입니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돈이나 벌자고 아무케나 제품 생산해서 자칫 효능이 떨어지거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먹는다고 상상해 보이소.”

연호는 단호한 눈빛으로 임원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라이... 앞으로는 이래 하도록 합시다. 우선, 섬유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알로에 젤을 걸러내는 필터는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그냥 버리소. 괜히 그런 거 아깎라카다가 혹시나 오염이라도 되모 어쩍니까. 그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있을 박테리아나 유해세균이 생산과정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세 번 이상은 작업장에 무균 테스트를 실시해야겠습니다. 한 번 사용한 기계는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주고예.

내 우선 여기까지만 말합니다만, 오늘부터 당장, 공장의 청결유지를 위한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 보이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자, 그럼 회의 시작합시다.”



대명플라테크 신재원 전무

위 원고 내용에 나오는 신대리는 현재 (주)대명 플라테크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며 회장님을 그리는 글을 아래와 같이 주셨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회장님께서서는 항상 긴장하며 빈틈이 없도록 따끔한 질책과 아낌없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회장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보살핌 덕분에 지금까지 절약 정신과 청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몸에 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Not Peddling Aloe

Univera Korea recently published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a biography of the late Chairman Yunho Lee, to commemorate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passing. Throughout his lifetime, Chairman Lee diligently fulfilled his founding philosophy by practicing the virtues of patience, forbearance, and compassion for the world and for humankind. We would like to share his life and the virtues he embodied with ECONETians around the world.

“Just look at this... Are you sure you cleaned this place properly?”
 Yunho’s booming voice reverberated throughout the factory.
 “Mr. Shin, get over here. You should know better than this.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It should be burned into your brain by now. This is just unacceptable; we’re a company that makes health foods after all.”
 Mr. Jaewon Shin’s head hung low as if he had committed a heinous crime, replied in a voice that was hardly more than a whisper.
 “We clean it several times a day, but it’s because this is the restroom, so...”
 “What? Who told you that it was okay for restrooms to be dirty?”

Upon arriving at work that morning, Yunho had set about on a surprise hygiene inspection of the factory premises and become furious when he saw the leak in the employee restroom. Jaewon picked up a mop and began cleaning the watery floor.

He knew that neither excuses nor explanations would avail him at a time like this. In matters of frugality and hygiene, trying to argue with Yunho was an utterly futile endeavor. If he ever spotted a perfectly fine piece of paper in the waste bin, saw the lights left on in an unoccupied office, or found the storeroom or the production line in the slightest disarray, an explosion of wrath would invariably follow. Jaewon always tried to take especial care, but unfortunately a crack seemed to have formed in the water tank in the employee restroom. Seeing Jaewon mopping the floor, Yunho added in a somewhat mollified tone, “We shouldn’t relax our discipline just because the company’s been doing better lately, right?”
 “Of course not, Sir...”

Jaewon knew that Yunho’s reprimand wasn’t directed solely at him. If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raised his voice to a lowly employee over a trivial matter, it was sure to intimidate the poor fellow before he even had a chance to think about the reasoning behind it. This was why Yunho always made a show of

scolding the blameless managerial staff, like Byeonggwon and Jaewon, as an example for the others.

From the restroom, Yunho’s surprise inspection continued through the storeroom, the garbage dump, and on to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factory. After checking all the window frames and even the railings on the staircases with his fingers, he finally proceeded up to the conferenc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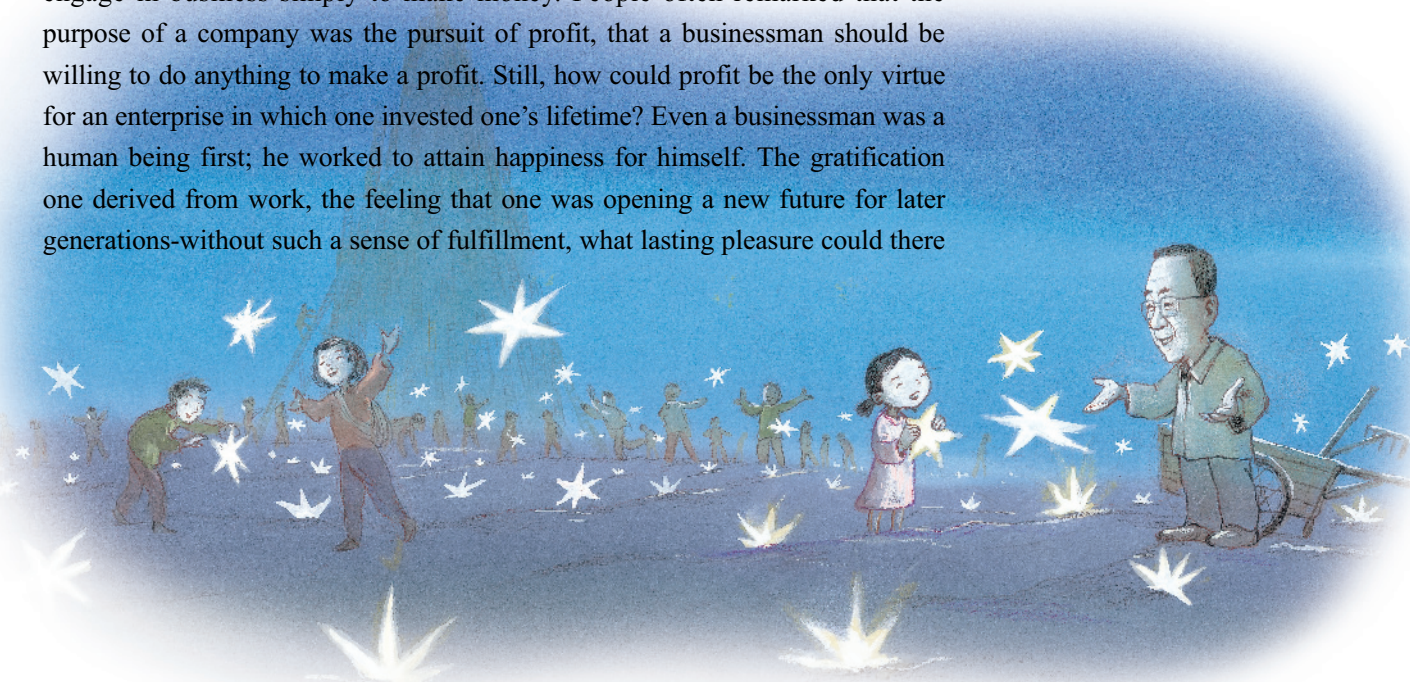
On the table, the day’s meeting agenda and reports from various departments awaited him.

“Congratulations, Sir. I hear that you’ll be resuming your post as vice chairman?”

General Manager Seunghwan Lee opened with a brief compliment, referring to Yunho’s recent reelection to the vice chairmanship of the Korea Association of Small and Midsized Housing Companies.

“That’s nothing to be congratulated for. I’d much rather be congratulated because Namyang Aloe was doing well.”

The market status of Dong Yang Housing, which had been created after the disbanding of Dong Yang Nonferrous Metals, was climbing higher each day. Although the real estate economy had taken a dip, the multi-family housing units that Yunho built were successfully distributed and were bringing in sizable profits. By contrast, Namyang Aloe’s earnings were negligible as yet. Sales were on the rise, but any profits thus yielded had to be poured right back into reinvestments. Outside observers questioned why Yunho was so hung up on the profitless Aloe business when he could just concentrate his energies on the highly lucrative housing enterprise. But it was Yunho’s firm belief that he did not engage in business simply to make money. People often remarked that the purpose of a company was the pursuit of profit, that a businessman should be willing to do anything to make a profit. Still, how could profit be the only virtue for an enterprise in which one invested one’s lifetime? Even a businessman was a human being first; he worked to attain happiness for himself. The gratification one derived from work, the feeling that one was opening a new future for later generations-without such a sense of fulfillment, what lasting pleasure could there



be in business? Anyone could start a construction company. One could make money from it, but one could not find sufficient meaning in such a business to stake one’s life in it. How fortunate he was, then, to be able to start a new life as an entrepreneur through Aloe! Yunho sent up a silent prayer of thanks.

“Let me start by reporting on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for the first half.”
“Hold on. Before we begin, I have an issue I’d like to address.”

Yunho interrupted Byeonggwon as he was about to open the meeting. Sensing what was to come, the executives all flinched in their seats.

“I apologize for raising my voice so early in the morning. But now that the administrative offices have been moved to the Jeil Building, it’s easy to become careless with the factory facilities... After carrying out a thorough inspection today, I can see that things are not as they should be. **What is our motto? Isn’t it to allow people to enjoy a healthier life? We’re not simply peddling Aloe here. This is a company that provides people with life and hope. Just imagine our customers consuming inferior or unhygienic products because we compromised our production environment just to make a few more bucks.**”

Yunho’s stern gaze moved slowly from one executive to the next.
“So,” he continued, “here’s what we’re going to do. First, the filter used to extract the Aloe gel after removing the pulp-let’s throw it away after a single use. It’s just not worth scrimping on, considering the risk of contamination. Also, don’t take it for granted that something is clean just because you can’t see anything on it. To ensure that airborne bacteria and harmful microbes don’t get into the production process, we need to institute sterility tests on the work floor at least three times a month. And don’t forget to meticulously clean and sterilize machines once you’ve used them.

“That’s all I’ll say for today. But I want you to immediately start compiling a detailed manual for the maintenance of hygiene on the factory floor. Please make sure that nothing like this happens again. Well then, let’s begin the meeting.”

Jaewon Shin, General Director, Dae Myung Platech

Manager Shin in the story above is currently working at Daemyeong Platech Inc. He sent us the message for Chairman Lee looking back to the time then.

Although I strived to do the best I could, Chairman Lee’s stern reprimands and generous counsel allowed me to maintain a constant state of alertness and meticulousness in my work. Thanks to his kind attention and guidance, conservation and cleanliness have become part of my everyday life. I am deeply indebted to Chairman Lee for his gracious care and consideration.



지식경영,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글 이 홍, 경영대학장, 광운대학교

지식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품질과 양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경영이 지식경영이다. 다른 기업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고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고안해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된 개개인들의 지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므로 기업경쟁력과 핵심역량을 배가하자는 것이 지식경영이다.

지식경영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식의 생성과 공유이다. 구성원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배가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식의 품질과 양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식생성이다. 그리고 생성된 지식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식공유이다. 지식생성과 공유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식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갖는 지식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서술적 지식, 절차적 지식 그리고 조건적 지식이다. 서술적 지식은 세상의 사물이나 개념 등에 관한 지식으로 소위

‘know what’을 말한다. 절차적 지식은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나 흐름에 관한 지식으로 ‘know how’와 관계가 있다. 조건적 지식은 서술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을 언제 사용하느냐와 관련된 지식으로 ‘know when’의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이 존재해야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이 세가지 지식이 증폭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지식생성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지식을 증폭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존 지식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의도적으로 던져야 한다. 왜 이렇게 하지? 이진 왜 그럴까? 다른 방법은 왜 없을까? 이러한 의문이 작동되면 기존의 방식(절차적 지식)이나 개념(서술적 지식) 그리고 이들 지식의 사용시기나 장소(조건적 지식)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된다. 기존의 지식에 대한 의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존 지식을 버리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나 개념 그리고 조건들이 발견되면 이것이 새로운 지식이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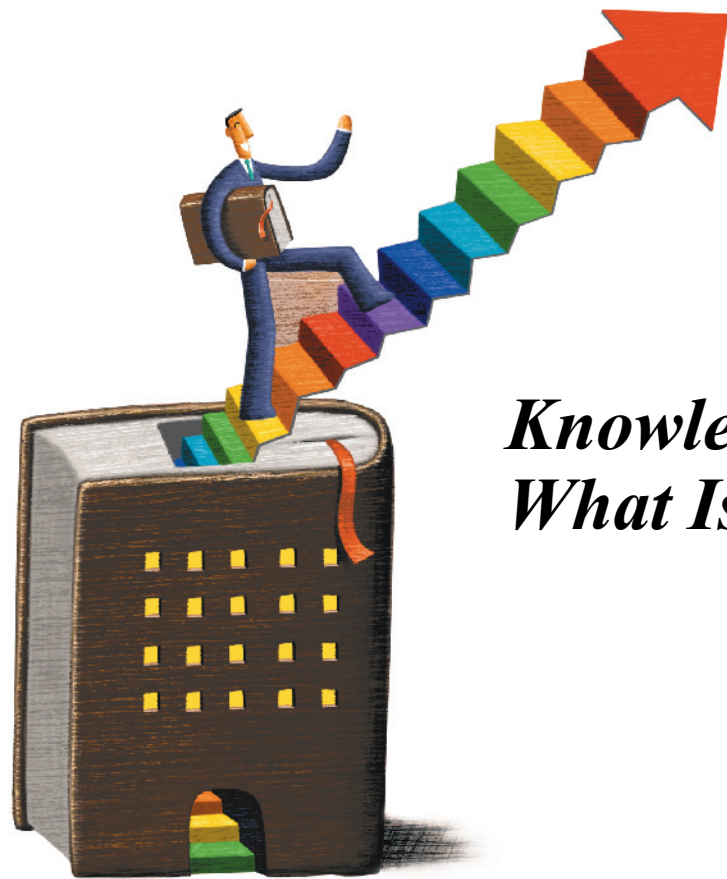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지식을 증폭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기존 지식에 의구심을 품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한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왜’라는 의문을 의도적으로 던져야 한다.

듣는다. 문제의식은 기존 지식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지식생성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식생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간단하다. 개인들로 하여금 기존 지식에 의문을 품고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도록 하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지식경영의 두 번째 핵심은 지식공유이다. 지식경영은 지식을 혼자 만들어 혼자 사용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지식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공유될 필요가 있다. 고려청자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우리는 고려청자의 진품을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분명 시장에 돌아다니던 물건이었는데 말이다. 여주나 이천 등에 가면 고려청자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짜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다. 왜 한국의 시장에서는 진짜 고려 청자가 사라졌을까? 왜 지금도 유능한 한국의 도공들이 수 백 년 전에 만들어진 고려청자를 놓고 95%를 복원하였는지, 99%는 된다는니 하는 한심한 일을 하고 있을까? 남들은 본 차이나를 만들었는지, 깨지지 않는 도자기를 만들었다는지 하여 기존의 도자기 지식을 수정하고 개량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비밀을 캐는데 바둥거리고 있다. 왜 그런가? 청자의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식공유가 안되면 고려청자 복원처럼 안 해도 될 일을 또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기업에서도 비밀비재하게 일어난다. 옆 부서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정보를 다시 얻기 위하여 출장도 가고 밤새워 일한다. 이런 구성원들은 마치 기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낭비라는 것이다. 또 유능한 구성원이 한 사람 나가면 그만큼 지식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고 없어진 지식을 충당하기 위하여 밤새워 일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식재생산으로 인한 낭비라고 한다. 개인이야 지식재생산을 하였다고 당장 손해날 일은 없다. 문제는 조직이다. 이러한 낭비가 쌓이면 조직에 무리가 가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식경영,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지식생성과 지식공유 이 두 가지 활동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Knowledge Management: What Is It All About?

By Hong Lee, Dean of Business School, KWANGWOON University

In recent years, 'knowledge management'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of corporate management. The persistent questioning of how best to enhanc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knowledge commanded by an organization-this constitutes the basis of knowledge management. Inventing new technologies not even dreamt of by other companies, devising methods for radically cutting down on production costs, sharing the knowledge that individuals gain through this process with the organization's many constituents, and thus boosting the company's overall competitiveness and core competency-these are the working principles of knowledge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comprises numerous activities, but the most essential of these is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 knowledge creation, one constantly searches for ways to multiply the knowledge

existing in the heads of individual members ultimately to augment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company's knowledge. Knowledge dissemination, then, is the rigorous pursuit of ways to share the knowledge thus created with other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ecause both the crea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re carried out by people, the core of knowledge management is the human being.

The knowledge possessed by human being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eclarative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and conditional knowledge. Declarative knowledge is knowledge about objects and concepts; it is what is commonly known as 'know-what.' Procedural knowledge is knowledge about the process or flow of a performed task, and is thus synonymous with 'know-how.' Conditional knowledge is related to understanding when to use declarative and

How, then, can we augment and upgrade knowledge? The basic principles are quite simple. To begin with, we must question existing knowledge. In other words, we must purposely and continuously ask "Why?"

Why?

conditional knowledge, and can be described as 'know-when.' The existence of these categories of knowledge enables human beings to apprehend the world and adapt to their environment. Knowledge creation is the augmentation and upgrading of these three knowledge types.

How, then, can we augment and upgrade knowledge? The basic principles are quite simple. To begin with, we must question existing knowledge. In other words, we must purposely and continuously ask "Why?" Why do we do this? Why is it done this way? Why can't we do it another way? Once such questions are triggered, existing methods (procedural knowledge), concepts (declarative knowledge), and assumptions about when and where to employ them (conditional knowledge) also come into question. Doubts about existing knowledge drive us to move beyond that knowledge. Once we discover new methods, concepts, and conditions, our discoveries then become new knowledge. We often hear about the need for a critical mindset. A critical mind constantly questions and challenges existing knowledge, and is hence the very starting point of knowledge creation. Therefore, the company's role in knowledge creation is simply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dividuals to question existing knowledge and to come up with new alternatives.

The second axis of knowledge management is knowledge dissemination. The goal of knowledge management does not lie in creating knowledge by oneself for one's own use. Knowledge must necessarily be shared with others. The fate of Goryeo celadon is an exasperating case in point. Authentic Goryeo celadon can only be found in museums and other exclusive venues, even though

celadon wares flooded the market streets during the Goryeo period. We can see Goryeo celadon bowls and vases in places like Yeosu and Icheon, but we invariably regard them as 'fakes' or 'replicas.' Why did authentic Goryeo celadon vanish from Korea's markets? Why are gifted Korean artisans still expending their precious time and effort in making "95% authentic" or "99% authentic" replicas of Goryeo celadon created centuries ago? When others are modifying and improving existing knowledge about ceramics by creating bone china and unbreakable porcelain, Koreans are still struggling to uncover the secrets of our ancestors. And why? It's because the knowledge of Goryeo celadon was never shared.

If knowledge is not disseminated, we must engage in more redundant tasks like the replication of Goryeo celadon. Similar things happen frequently in the corporate world. People go on business trips and pull all-nighters just to acquire knowledge that someone in an adjacent department must surely possess. Such people might appear to be working hard for their companies, but from the companies' point of view they constitute unnecessary waste. Moreover, when one valuable member of the organization departs, their store of knowledge disappears with them. As a result, their replacement must work for hours to replenish the lost knowledge. These instances represent what is known as waste resulting from the reproduction of knowledge. The individual might not immediately be disadvantaged by knowledge reproduction. The problem is the organization. Needless to say, if such waste accumulates, the organization suffers as a result. So what is knowledge management all about? It is about the simultaneous and diligent pursuit of both knowledge creation and knowledge dissemination.

웰니스(Wellness)?

‘웰니스(Wellness)’라는 말은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책이나 잡지 등에서 흔히 접하는 말입니다. 또 각자 자신의 삶에서 나름대로 실천하려 애쓰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웰니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글 권수남 대리, CTO실, 에코넷 한국 홀딩스

웰니스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삶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웰니스 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난 햄버거 대신 치킨 샐러드를 먹었어.”

“저는 매일 16시간 일합니다. 덕분에 5년 만에 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난 날마다 운동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빼먹거나 거르지 않아.”

얼핏 듣기에는 모두 꽤 괜찮은 생활 방식, 성공적인 삶인 듯 하지만 이는 진정한 웰니스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균형 잡힌 ‘웰니스 생활’인지 진단해 볼까요?

먼저, 아래의 네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 ▶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가?
- ▶ 나는 얼마나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
- ▶ 나는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하는가?
- ▶ 나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웰니스는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웰니스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스파(Spa)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는 그 동안 서울에 거주하면서 스파가 서울에서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중 목욕 시설 중 다수가 이제는 ‘목욕탕’이 아닌 ‘스파’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들은 좀더 다양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고객중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는 무엇을 뜻할까요?

스파는 ‘물을 통한 건강’이라는 뜻의 라틴어 ‘사누스 페르 아쿠암(Sanus Per Aquam)’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 물을 이용한 치료와 목욕을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파에서 제공되는 물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수치요법(Hydrotherapy), 증기 사우나, 수중음악요법(Liquid Sound), 와츠(Watsu, 물을 이용한 시아츠 마사지), 폭포 샤워, 스파 워터 파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천연온천(Thermae), 해수요법(Thalassotherapy), 일본식 온센, 러시아식 사우나인 바냐(Banya), 전통적인 온천 등 전통적 스파들도 다시 유행할 전망입니다. (출처: 2005년 12월 9일자 Spa Finder)

Wellness

(사진 출처 : www.cooperaerobics.com)

그러나, 오늘날 스파 서비스는 더 이상 물, 마사지, 미용에 관련된 것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스파는 웰니스의 네 가지 요소인 육체적, 심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을 위한 폭넓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스톱 스파’라고 불리는 스파 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스파, 목욕, 얼굴 마사지 및 트리트먼트, 영양 관련 서비스, 피트니스(Fitness), 교육 세션, 질환이나 신체적 증상에 관한 평가 및 조언,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스파 시장에서는 목적 지향의 혁신적 스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적 스파(Destination spa) 혹은 메디 스파(Medi-spa)로 분류되는 이러한 시설들에서는 한 곳에서 마사지 등 미용 관련 트리트먼트는 물론 의료, 영양, 신체에 관한 상담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년 랜치(Canyon Ranch)와 쿠퍼 에어로빅 센터(Cooper Aerobics Center)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인데, 이곳

시설들의 서비스와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ww.canyonranch.com / www.cooperaerobics.com

우리 에코네시안들은 모두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인 에코넷에서 일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웰니스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과 삶에 있어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에코네시안 여러분, 웰니스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이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개선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07년 한 해에 모두에게 건강과 웰빙이 깃들길 빌며,

What is Wellness?



By J. Soonam Kwon, Assistant Manager, Division of CTO, ECONET Korea Holdings

As ECONET is at the verge of launching a new line of business in wellness followed by our successful functional food, aloe raw material, and cosmetic lines, I was approached by ECONET Way editors to write a short column on ‘wellness’ since my role at ECONET entails on developing a wellness program for ECONET’s resort & spa facilities to come in the next few years. I prudently write this article in hope to enhance ECONETians’ better understanding and attainment of informative sense on wellness.

Wellness, Wellness, Wellness~ We hear it on radio, see it on TV, read it on books and magazines, and try to ‘live’ it in some ways in our lives. So what is wellness?

Wellness by definition is state of balanced physical, mental, spiritual, and social well-beings. Therefore, a wellness lifestyle implicates a well-balanced state of above four elements embedded within one’s lifestyle.

“Today, I had chicken salad instead of hamburger.”
“I’ve been working 16 hours everyday, and in 5 years I am already a Department Head.”
“I work out everyday and I don’t compromise my exercise schedule with anything”

All sound like making healthy choices and successful life pattern, but it cannot being said to be a true wellness

lifestyle because the four components in life, which are physical, mental, spiritual, and social well-being (all equally important), are not being balanced.

So how balanced and wellness lifestyle is YOUR life?
Well, you can start by asking yourself these simple questions:
▶ How many hours per day do I work?
▶ How healthy am I eating?
▶ How many hours per week do I exercise?
▶ How content am I spiritually?

While wellness should be manifested in one’s lifestyle, one major eventful way to attain wellness is through spa. As a Korean American living in Seoul, I came to realize how spa is a big part of Seoul life. Many of pubic bathing facilities are now calling themselves as ‘spa’ instead of ‘Mok-Yok-Tang’, translated as ‘Public Bathing House’ and the services they offer has become more diverse, upgraded, and customer oriented.

So what does Spa mean?
The word ‘spa’ is an acronym for the Latin phrase ‘Sanus Per Aquam’ (‘health through water’), reflecting spas’ origins as centers for bathing and water treatments. Some of spa services relating water are hydrotherapies, vapor caves, liquidsound, watsu, deluge showers, and spa water parks. Also look for a revival of traditional natural thermae, thalassotherapy, Japanese onsen, Russian

Wellness



banyas and old-world bathhouses. (Spa Finder, December 9, 2005)

However, spa services today are no longer limited to water, message, or beauty related services that ‘spa’ is turning into a hut whe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services of all 4 areas of wellness components, physical, mental, spiritual, and social well-beings, are being provided.

Today it is commonly known that so called one-stop-spa is what is in demand where you can receive different kinds of services at one stop, which can include spa, bathing, facial treatment, nutritional services, fitness, education sessions, assessments and recommendations on medical and physical conditions, and ways to explore different kinds of exercises. In that, there have been new trends in spa world where innovative and purpose driven spa services are being provided, categorized as destination spa or medi-spa where services on medical, nutritional, and physical consultation and not to mention beauty related treatments such as facial and messages are available all in one stop facility. The two major successful cases are Canyon Ranch and Cooper Aerobics Center. Check out their websites and learn more about their services and trends:
www.canyonranch.com and www.cooperaerobics.com

All ECONETians are privileged to work at ECONET, a

“community wher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together”. Ultimately, it is implied upon us to strive to dwell a wellness lifestyle, which as a whole entails a good balance in work and life.

So to all ECONETians, are you living a wellness lifestyle? It is the beginning of a new year and there can’t a better time to think about, evaluate, and try to reform your lifestyle !
Wishing everyone healthy and well-being 2007 ~!

(All pictures are from websites of Cooper Aerobics Center and Canyon Ranch.)



생명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

도선길 수석연구원, 생리활성검정팀, 유니젠 한국

글 장미라 기자, 경영지원본부 총무인사팀, 유니젠 한국

지난 밤의 옅은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도선길 수석연구원의 방은 벌써 불이 환하다. 그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에코넷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여는 유니젠 한국의 생명과학연구소. 그 곳에서도 늘 도선길 수석연구원의 방에서 새벽 어둠을 밀어내는 불이 가장 먼저 켜진다.

그는 현재 유니젠 한국에서 생리활성검증팀 팀장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을 시험관 실험과 동물실험 그리고 인체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능의 신비를 밝혀내는 업무를 맡고 있다.

ROTC장교 출신답게 언제나 정돈되고 빈틈없어 보이지만 다가서면 속 깊은 정과 부드러운 마음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생명연구를 위해 오늘도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에코넷 웨이'가 자랑스런 에코네시안으로 소개하려는 도선길 수석연구원이다.

지난 2003년 유니젠 가족이 된 그는 입사 이후 유니젠의 차별화된 효능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식물성분의 효능을 밝히는데 남다른 도전 의식으로 많은 기여를 하

였다. 특히 유니젠이 개발한 관절기능개선 기능성 원료 '유니베스틴 케이(Univestin K)' 효능 검증을 위해 시험관 실험부터 인체임상 실험까지 전 과정의 효능검증연구를 우수하게 수행하여 한국 식약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획득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외에도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프론티어21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올해 한국생명과학원으로부터 최우수과제로 선정되고, 과학기술부 선정 우수연구과제 50선에 선정되는데 큰 몫을 했다.

현재 생리활성검증팀의 팀장인 그의 팀원 사랑은 남다르다. 그는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창의와 도전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평소 팀원들에게 강조하며 창의적인 자세를 길러주기 위해 많은 경험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외부 교류에 앞장서고, 팀원들이 도전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팀원에게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주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신도 부단한 공부와 연구를 통해 팀원 및 다른 동료 연구원들과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

그는 유니젠 한국 내에서 개성이 가장 강하고 독특한 면이 많은 팀장이다. 늘 풍부한 유머와 유쾌한 모습으로 팀 분위기를 이끌며 팀원 각각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해 나가고 있으며, 팀원들과 업무관계를 떠나 개인적인 고충까지도 대화와 팀내 멘토링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해나간다. 말 그대로 서번트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 새벽 그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듯 생명연구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도 그는 가장 먼저 하루를 맞이한다.

▶ 유재호

아이스 브레이커(Ice breaker)라고 할 수 있죠.
냉랭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에서 던지는 한 마디로 분위기(?) 좋아지잖아요?

▶ 김태우

미소와 유머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진 팀장님,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솔선 수범하는 자세를 가진 분이죠.

▶ 김영선

유쾌~! 상쾌~! 통쾌~!!

▶ 표창민

유니젠의 싱크탱크~~!!!

▶ 남정범

모든 일에 긍정적인~!! Positive mind~!!!

이른 새벽 그의 방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듯 생명연구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1. 점심시간 유니젠 한국 연못가에서
2. 인증식에서

1. Lunchtime at a pond in Unigen Korea
2. At the certificate ceremony

A Beautiful Challenge for Life



Seongil Do
Ph.D., Principal Researcher, Bioassay Discovery Team, Unigen Korea

By Mira Jang, Reporter,
General Management Division/HR & General Affairs Team, Unigen Korea

The faint shadows of last night still linger in the early morning sky, but bright light already spills from Principal Researcher Seongil’s office. His day has begun. Each morning, the Institute of Life Sciences opens the day for Unigen Korea, and the light in Seongil’s office is always the first to drive away the darkness of dawn.

Seongil currently heads the Bioassay Discovery Team at Unigen Korea. His work is to unveil the mysterious properties of chemicals extracted from plants growing all over the world through in vitro experiments, animal testing, and human clinical trials.

True to his ROTC background, Seongil always appears flawless and impeccably organized. But once you get close, you find yourself awash in his profound warmth and tender solicitude. Armed with both cool rationality and fiery passion, he gets up each day and takes on yet another beautiful challenge for life sciences. Principal Researcher Seongil Do-he is the man that this issue of ECONET Way proudly presents as an exemplary ECONETian.

Since joining the Unigen family in 2003, Seongil strengthened Unigen’s differentiated efficacy testing protocols, and made great contributions in uncovering the properties of botanicals with his unsurpassed spirit of challenge.

Particularly in the case of Uninvestin K, a joint function enhancing ingredient developed by Unigen, he played a critical role in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by superbly carrying out the entire efficacy testing process from in vitro testing to human clinical trials. Recently, he took part in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s ‘Frontier 21 Program’ and successfully performed research to develop new technologies that utilize indigenous plants. His project was selected as the best in 2006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listed among the 50 most important projects by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s the leader of the Bioassay Discovery Team, he shows extraordinary love for his team members. He always reminds them that for researchers devoted to the science of life, unbridled creativity and the drive to seek out new challenges are important above all things. To instill this creative spirit in those he leads, he actively provides opportunities for outside exchange so that they may cultivate broader and more variegated experiences. He also works to maintain an autonomous working environment that allows his team members to be bolder and more enterprising in their research. Improving himself constantly through ceaseless research and study, he actively engages in discussion and collaboration not only within the team but also with his fellow researchers.

Seongil possibly possesses the strongest and most distinctive personality among all team managers at Unigen Korea. He raises the team’s spirits with his bountiful humor and vibrant demeanor, dexterously accommodates and calibrates the opinions of the various team members, and even steers them through personal crises by offering mentorship and dialogue. In short, he embodies the virtues of servant leadership.

Just as the light spilling from his office at break of day pushes out the gloom and brightens the world, so may his ardent passion for bioscientific research become a shining beacon that illuminates our lives. Another dawn breaks, and Seongil, as always, is the first to greet the new day.

- “He’s a true ice breaker. When the atmosphere is chilly and awkward, one word from him lightens up the room.”
Jaeho Yoo
- “A team manager with humor, charisma, and a constant smile. He has fierce dedication and always strives to set an example.”
TaeSoo Kim
- “Buoyant! Refreshing! Unconstrained!”
YoungSun Kim
- “Unigen’s think tank!”
ChangMin Pyo
- “Optimistic in all things! A positive mind!”
JungBum Nam

Just as the light spilling from his office at break of day pushes out the gloom and brightens the world, so may his ardent passion for bioscientific research become a shining beacon that illuminates our lives.



1. 인증식중 쉬는시간에 한컷
2. 유니젠 한국 연구원들과 인증식에서
1. Breaktime during the certificate ceremony
2. At the certificate ceremony with researchers of Unigen Korea

에코넷의 마케팅을 이끄는 사람들

‘에코넷’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마케팅이라는 역할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에코네시안들”입니다. 물론 아직 규모가 작은 계열사 중에는 마케팅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땀흘리며 일하는 에코네시안 여러분의 업무를 서로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Marketers Who Lead ECONET

They are ‘ECONETians’ who are in charge of marketing in ECONET. Some marketing departments of our small affiliated companies still have to face other various tasks other than marketing. Although they are the ECONETians who work in different regions, we hope that you get to know them and their work better.

Go! Go!
Our Division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네이처텍 / NatureTech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왼쪽부터 최재영 차장과 Mark Brimelow
▲ From left : Jaeyoung Choi, Mark Brimelow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 덕 린치 / Doug Lynch

1. 부서명 : 해외영업팀

2. 직원수 : 2명

• 최재영 차장 • 마크브리임로우 상무

3. 구성원들의 역할

최재영 차장님은 마케팅 업무와 영업업무를 지원하고 마크 브리임로우 상무는 아시아 영업을 담당한다.

4. 하고 싶은 말

반갑습니다. 아시아 천연물산업의 새로운 희망, 유니젠 해외영업팀입니다.

1. Department : Overseas Sales Team

2. Number of employees : 2

• Jaeyoung Choi (Assistant Department Manager)
• Mark Brimelow (VP)

3. What they do

• Jaeyoung Choi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for marketing and sales.
• Mark Brimelow is in charge of sales in the Asian region.

4. Greetings

Salutations! We are the members of Unigen’s Overseas Sales Team, the new hope for Asia’s natural botanicals industry.

1. 부서명 : 판매 & 마케팅

2. 직원수 : 1명 • 덕 린치 상무

3. 구성원들의 역할

덕은 유니젠 세일즈팀을 맡고 있다. 주요 업무로 영양관련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유니젠의 전략을 수립하고 조율한다. 캐티 마컴(임원보조, 유니젠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덕은 그녀가 매우 창의력이 있고 훌륭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칭찬했다.

4.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에코네시안 여러분!

1. Department : Sales and Marketing

2. Number of employees : 1

• Doug Lynch (VP Sales and Marketing)

3. What he does

In addition to being responsible for the efforts of the Unigen sales team, Doug defines and coordinate Unigen’s strategy for increasing market share in the core nutritional business, as well as Unigen’s expansion into new markets. Doug says he gets a ton of help from Ms. Kathy Markham, Executive Assistant. She is extremely creative and a fantastic project manager!

4. Greetings Greeting: Salutations, fellow Econetian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왼쪽부터 이지희, 이재연, 김훈경, 변인숙, 이혜정, 정현정, 김정훈 이원석, 최진영, 강창성, 박정아, 신은미, 조복희, 최유진, 신인수

▲ From Left : Jihi Lee, Jaeyeon Lee, Hunkyoung Kim, Innsook Byun, Haejung Lee, Hyunjung Jung, Junghoon Kim, Wonseok Lee, Jinyoung Choi, Changsung Kang, Jeongah Park, Eunmi Shin, Clara Cho, Yoojin Choi, Insoo Shin

1. 부서명 : 마케팅본부

2. 직원수 : 16명

• 조복희 마케팅본부장 • 마케팅기획팀 • BM팀 • 고객지원팀

3. 구성원들의 역할

- 조복희 상무는 유니베라 마케팅본부의 책임자로 유니베라의 명성을 높이는 일을 진두지휘한다.
- 마케팅기획팀은 최진영 팀장, 이원석 대리, 김정훈 주임, 김종수 주임, 신인수 사원, 이혜정 사원, 이재연 사원은 광고, 홍보를 담당하며 유니베라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주력하고 있다.
- “BM팀은 이주연 팀장, 변인숙 대리, 최유진 대리, 강창성 사원은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고객지원팀은 박정아 팀장, 신은미 대리, 정현정 주임, 김훈경 주임은 고객접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마케팅본부는 2007년에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유니베라 브랜드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가치 구축을 위해 유니베라 미국과 협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1. Department : Marketing

2. Number of employees : 16

CLARA CHO Director of Marketing Div., Marketing Planning Team, BM Team, Customer Satisfaction Team

3. What they do

- As the head of Univera’s Marketing Division, Clara Cho oversees all projects related to raising Univera’s fame and reputation.
- The Marketing Planning Team (Jinyoung Choi/Team Manager, Wonseok Lee /Assistant Manager, Junghoon Kim/Senior Staff, Jongsoo Kim/Senior staff, Insoo Shin /Staff, Haejung Lee/Staff, Jaeyeon Lee/Staff) is in charge of advertising and promotion, and works to ensure smooth communication with Univera’s clientele.
- The BM Team (Jooyeon Lee/Team Manager, Ihnsook Byun /Assistant Manager, Yoojin Choi/Assistant Manager, Changsung Kang/Staff) is in charge of product development.
- The Customer Satisfaction Team (Jeongah Park/Team Manager, Eunmi Shin/Assistant Manager, Hyunjung Jung/Senior Staff, Hunkyoung Kim/Senior Staff) works directly with customers to provide customer service.

4. Greetings

In 2007, the Marketing Division dedicates itself to maximizing Univera’s brand value in the health foods industry. In addition, it will maintain a clos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Univera USA to elevate Univera into a leading world-class brand.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왼쪽부터 데이브, 수잔, 홀리, 다나, 조엘 리치와 에이미는 출장때문에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 From Left : Dave, Susan, Holly, Donna and Joel. Rich and Amy couldn’t be in the picture due to their business trip.

유니베라 마케팅 그룹은 매출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회사와 제품 그리고 웹사이트 의 새로운 브랜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생산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 부서명 : 마케팅

2. 직원수 : 7명

- 리치 라즈가이트스 (판매& 마케팅 부사장)
- 수잔 헤이저 (마케팅 상무)
- 조엘 패트릭 (브랜드 매니저)
- 홀리 파크 (크리에이티브 서비스 매니저)
- 데이브 포한 (그래픽 디자이너)
- 에이미 서머스 (그래픽 디자이너)
- 다나 산달 (카피 라이터)

3. 구성원들의 역할

- 리치는 유니베라 미국의 모든 마케팅 업무를 총괄한다.
- 수잔은 마케팅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 조엘은 패키징, 부대 자료들, 프로모션 아이템 개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유니베라 제품의 마케팅 활동을 추진한다.
- 홀리는 카피라이터와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관리하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전 부서를 오가며 일한다.
- 데이브와 에이미는 홍보 전단에서부터 잡지 그리고

- 웹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 홍보를 맡고 있다.
- 다나는 고객들에게 유니베라 제품에 대한 소개와 교육에 필요한 홍보 카피를 만든다.

4. 하고 싶은 말

유니베라 마케팅 그룹은 매출 증대와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회사와 제품 그리고 웹사이트 의 새로운 브랜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생산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1. Department : Marketing

2. Number of employees : 7

- Rich Razgaitis (EVP of Sales and Marketing)
- Susan Haeger (VP of Marketing)
- Joel Patrick (Brand Manager)
- Holly Park (Creative Services Manager)
- Dave Forhan & Amy Summers (Graphic Designer)
- Donna Sandahl (Copywriter)

3. What they do

- Rich oversees all Univera USA Marketing projects and sets up marketing initiatives and
- Susan manages the marketing projects for Univera working with Rich Razgaitis.
- Joel drives the marketing efforts of our produc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packaging, collateral materials, promotions and the use of our web sites.
- Holly manages the copywriters and graphic designers and works cross-departmentally to manage projects through development.
- Dave and Amy get a variety of projects from flyers and magazines to web-sites.
- Donna composes marketing copy designed to educate and inform our customers about the Univera line of products.

4. Greetings

Univera’s Marketing Group is focused on supporting continued dynamic sales growth, preparations for international expansion, and the very exciting re-branding of the company, the products and our Web sites. 2007 is going to be a busy and productive year!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 밥 앱스 / Barb Apps

1. 부서명 : 시장 개발 & 마케팅

2. 직원수 : 1명 · 밥 앱스 상무

3. 구성원들의 역할

밥은 고객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알로콧이 세계적으로 판매를 확장하고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4. 하고 싶은 말

시장을 주도하며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현재 우리는 알로에 베라에 대한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꾸준히 우리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Department :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2. Number of employees : 1

· Barb Apps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and Marketing)

3. What she does

Barb leads marketing initiatives while supporting Aloecorp’s global sales force with account development opportunities.

4. Greetings

It’s a joy to work for such an established, market leading company like Aloecorp; we are constantly challenging ourselves and the aloe industry to new levels of innovation and scientific inquiry related to Aloe vera.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 리트비노브 알레그 알렉산드로비치 / Litvinov Oleg Aleksandrovich

1. 부서명 : 총무팀

2. 직원수 : 1명 · 리트비노브 알레그 알렉산드로비치

3. 구성원들의 역할

알레그는 마케팅 업무와 세관 업무를 지원한다

4. 하고 싶은 말

2006년 유니젠 러시아에서 세일즈 매니저로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유니젠 러시아 에서 생산하는 황금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받느라 분주한 한 해였다. 올해는 국내외 황금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1. Department: General Affairs

2. Number of employees : 1

· Litvinov Oleg Aleksandrovich (Sales Manager)

3. What he does

Oleg provides support for marketing and customs.

4. Greetings

I enjoyed a successful year in 2006 as Unigen Russia’s sales manager. Obtaining the necessary government permits and related documents for exporting Unigen Russia’s Scutellaria baicalensis kept me busy throughout the year. In 2007, I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for Scutellaria baicalensis and devote myself to achieving our projected goals.



네이처텍 영업 1팀

NatureTech Sales 1Team

그동안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네이처텍의 ERP, 물류혁신 등 관리체계 안정화를 주로하였던 신중현 본부장이 신설된 네이처텍 영업본부의 수장이 되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영업의 새바람을 일으키시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Division Director Joonhyun Shin, who was the head of the Business Division and who played a vital role in stabilizing the diverse system of Nature Tech, has been promoted to the Vice President position of the Sales Division. With his powerful, keen business acumen, it is believed that a new revolutionary change will take place in the Division.

1. 부서명 : 영업 1팀

2. 직원수 : 5명 · 1, 2팀 본부장 신중현

· 예정수 부장 · 박종민 대리 · 이경준사원 · 김태옥 사원

3. 구성원들의 역할

팀장 예정수 부장은 국내외 OEM/ODM에 대한 영업활동을 총괄하며 SCM팀 구매 담당이었던 박종민 대리가 합류하여 더욱 활기찬 영업 활동을 예산한다. 또한 신규 인력이 보강되어 이경주 사원 외1명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김태옥 사원은 영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주문 접수에서부터 입금 관리까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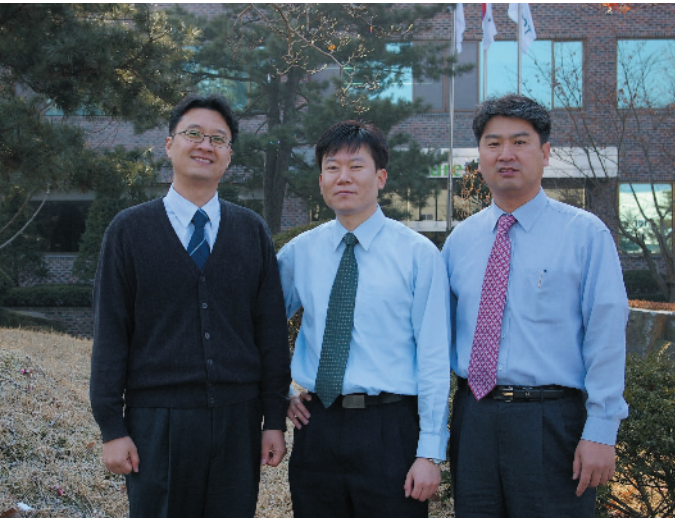
1. Department : Sales 1Team

2. Number of employees : 5

· Joonhyun Shin (Head of Sales Division Vice President)
· Jeongsu Yea (Team Manager) · Jeongmin Park (Section Manager)
· Kyoungjun Lee (Staff) · Taoak Kim (Staff)

3. What they do

Team Manager Jeongsu Yea supervis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EM/ODM of the Sales Division, and as Section Manager Jeongmin Park recently joined the team, it is expected that the Division will create



네이처텍 영업 2팀

NatureTech Sales 2Team

new ways to generate higher profits. Furthermore, two additional members including Staff Kyoungjun Lee joined the team. Taoak Kim will be responsible for taking orders, and managing finances.

1. 부서명 : 영업 2팀

2. 직원수 : 2명 · 김재승 과장 · 박연호 대리

3. 구성원들의 역할

팀장 김재승 과장은 유니베라 KOREA의 영업 담당으로써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업무와 CFTeam의 팀장을 겸하고, 박연호 대리는 유니베라 USA 영업 담당으로써 해외 영업을 위한 수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1. Department : Sales 2Team

2. Number of employees : 2

· Jaeseung Kim Manager · Hoya Park Section Manager

3. What they do Team Manager Jaeseung Kim is in charge of sales, promotions and marketing at Univera KOREA. He is also the Team Manager of the CFTeam. Section Manager Hoya Park is in charge of USA sales, and heads export duties related to international sales.

에코넷으로의 초대



피터 해퍼만과의 점심 식사

왼쪽부터 글레나, 피터, 안드레아 / From Left Glena, Peter, Andrea

인터뷰 안드레아 킬몬, 팀장,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글레나 톰슨(고객관리 팀원, 유니베라 미국)과 나는 새해의 첫 번째 수요일에 알로콱 사장인 피터 해퍼만과 올림피아의 해안가에 위치한 머카토라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자매회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들뜬 우리는 주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질문을 시작했다.

안드레아 새해라 무척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 천만에요. 숙녀분들과 근사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영광이지요. 그리고 두 분이 자매회사인 유니베라의 직원이어서 더 뜻 깊습니다.

안드레아 감사합니다. 알로콱 사장으로 올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피터 작년에 완성한 전략계획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장과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지역 확

장과 핵심사업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가치사슬(Value Chain)에 수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두 개의 자매회사, 지주회사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피터 300명 직원 중 7명만이 이 곳에 있고 대부분은 멕시코와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간과 자원을 나눠 쓸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또한 회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며 동료애를 쌓기에 좋습니다. 유니젠 뿐만 아니라 유니베라도 우리 주요 고객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조직의 단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좋은 여건이 됩니다.

안드레아 서번트 리더십이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피터 알로콱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서번트 리더십은 저에게 무척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번트 리더십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를 좋아합니다. 개인과 직장 생활 모두 이 개념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야말로 이 곳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어떤 다른 회사에도 이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Culture and Diversity committee)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전 회사의 직원이 서번트 리더십에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드레아 일과 가정,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시나요?

피터 어려운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가족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하루 24시간 내내 일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모두에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여행을 많이 다녀야 하는 업무이다 보니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새삼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함께 합니다. 저는 '함께 놀이하는 가정은 흩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두 함께 하키 게임, 스키, 골프, 여행을 합니다. 주말을 집에서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는 16년간 동고동락한 사랑스런 아내 마줄린과의 사이에 14살 알렉산더와 11살 앤드류라는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그들은 최근에 새로 개조한 웨스트 올림피아의 집에 살고 있다.



Welcome to ECONET

Welcome to ECONET



Lunch with Peter Hafermann

Interview Andrea Tillmon, Customer Care Team Lead, Univera USA

Glenna Thompson (Customer Care, Univera USA) and I had the opportunity to have lunch with Peter Hafermann, CEO of Aloecorp, on the first Wednesday of New Year. The restaurant we chose was Mercato, a lovely restaurant by the waterfront in Olympia. We were excited to learn more about our sister company. After we ordered our lunch, we settled in to ask him some questions.

Andrea I guess this time of the new year will be quite hectic for you. Thank you for your time with us.

Peter You're welcome. It's my pleasure to have a nice lunch with two ladies. I am especially glad to spend time with employees from our sister company, Univera USA.

Andrea It's our pleasure, too. Can I start the interview by asking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would like to achieve in 2007 as CEO of Aloecorp?

Peter I would like to see us achieve the strategic plan we developed last year. Our main focus is on market and product development. We're also concerned with geographic expansion and defending our core business, as well. We are looking at mergers and acquisitions as a way to vertically integrate them into the value chain. We're anticipating a lot of growth in 2007.

Andrea How is it working out for you, having 2 sister companies, and our holding company under the same roof?

Peter It doesn't really impact us so much, considering only 7 of our 300 employees are here. The bulk of our employees are in Mexico and Texas. It does cut down on costs as we share space and other resources, and it helps with communication and camaraderie between companies. Univera is actually one of our customers, as is Unigen. There's a very productive synergy there. It helps us develop teamwork and makes it easier to brainstorm.

Andrea How do the principles of Servant Leadership affect your behavior and life?

Peter When I came to Aloecorp, it was a new concept to me. I really like it though, and the culture that it creates here. I've tried to implement it in my personal

and professional life. It doesn't come naturally for me, and it's something I've worked hard on. I really can see the benefits of it. It's what makes the culture here unique. This is unlike any company I've ever worked for. It's been exciting working on the Culture and Diversity committee, too. We're discussing ways of familiarizing all of our companies with the tenets of Servant Leadership. The best way is to engage one person at a time.

Andrea How do you balance work and family life?

Peter This is really difficult. It's also very important. Of course your family has to come first.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t's a struggle, because you can work 24 hours a day and still not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t times. The focus has to be on both. My job involves a lot of travel and it's important that my family stays close. My family does lots of things together. I'm a strong believer in "The family that plays together stays together." We go to hockey games, ski, play golf, and travel together as a family. It's important to have weekends home together.



Peter has two boys, Alexander 14 and Andrew 11, and a lovely wife of 16 years, Marjolaine. They live in West Olympia in a home they've recently renovated.

에코넷 가족 여러분께 쓰는 편지



글 아메드 버살리, 고객관리 팀원, 유니베라 미국

에코넷 가족 여러분,

짧은 글을 통해서나마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조국 알제리에서 교사로 퇴직한 다음 날인 2003년 3월 1일에 생애 처음으로 미국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얻게 되었을 때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부딪치게 될 많은 문제들이 뇌리에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 몇 년 동안 올림피아에서 살고 있던 친구에게 제가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영어를 배우기 위해 South Puget Sound Community College 에 등록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의 거의 모든 ESL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미국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이민자들을 위해 애써주신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 공부 이외에 불어 교사 자리를 구하고 있었는데 지인들을 통해 워싱턴 주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의 사립학교라면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도시로 옮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에서 불어를 가르칠 기회가 있었지만 매우 짧은 기간동안이었습니다.

올림피아 시내의 음식점에서도 일을 했는데 저녁에만 일하고 낮에는 학교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무척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미국인들과 많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구직알선기관인 워크소스센터를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가 불어로 말하는 것을 한 숙녀분이 듣고 마침 불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며 다음날 아침 페스코 테스트를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제까지 받았던 그 어떤 시험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로 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우연하게도 제 생일날 유니베라에서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에 다니면서 지켜야 할 많은 규칙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흥분되었지만 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하였고 12:28분이 되자 크리스틴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게 브룩과 제니퍼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실세 없이 많은 것들을 질문했고 저는 그 하나 하나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인과 통화도 매우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Relationship Marketing과 회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했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제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듣고는 있었지만 크리스틴이 가르치는 내용의 75%-80% 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동료들에게 질문을 했고,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확신이 있을때조차도 다시 동료들에게 확인하곤 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Relationship Marketing, 회사, 제품 그리고 회사 정책과 절차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제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곳에 있는 분들이 모두 친절하고 팀 워크를 중요시 하는 분들이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게는 영어도 배우고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며 이처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모든 동료들과 유니베라의 전 직원들, 특히 이 일에 있어 제게 많은 도움을 준 안드레아 킬몬씨께 감사합니다.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지켜봐 준 크리스틴 네일즈씨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 Letter to Fellow ECONETIANS



By Ahmed Bersali, Customer Care Representative, Univera USA

Dear Econetians,
In these few lines, I will try to share with you my adventure in the US. I landed in this country on the first day of my retirement of teaching in my country, Algeria. It was on March 1, 2003. When I got my legal permanent resident status, I was very excited and anxious at the same time. I decided to move to the United States knowing that I would face many problems once I got here. In the meantime, I called my friend, who has been living in Olympia for a couple years, to make sure that I would have a minimum of help once I arrived in the US.

The first step for me was my registration at South Puget Sound Community College where I spent most of my time starting to learn English. In fact, I went through all the ESL classes. I had wonderful teachers who spent their time and effort to feed my brain with knowledge, and the American way of life. I am very grateful for all those who give their time and efforts to the new immigrants. There are no words to thank them.

Besides school, I was looking for a job as a French teacher. I learned from acquaintances that I have to go through a long process to be certified to teach in Washington State. I also learned that I would have more chance with a private school in Seattle, but I was not ready to move from Olympia to a big city. I had a chance to teach in Olympia, but only for short periods.

I worked for a restaurant in downtown Olympia because the schedule - I worked just evenings- was very convenient for me to be able to attend school during the daytime. The truth also was that I avoided jobs that made me come face to face with Americans, because of my poor English.

Recently, I went to Work Source looking for a new job and I was very surprised

when I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a very organized place with people helping others and doing so much for the community. By chance, a lady heard me speaking French and, right away, she told me, “We have been looking for a French speaker for so long! Would you like to take a Pesco test tomorrow morning?” Without hesitation, I said yes. I went carefully through the test and even though I have had many tests at school, this one was different, so I did it patiently. A couple days went by, and I got a call from Univera for an interview on my birthday! I was excited but not nervous because, when I attended the workshops, I learned that there are a lot of rules we have to comply with.

I was on time for my interview. At 12:28 pm, Kristen called me into the office. She introduced to me to two people, Ms. Brooke and Ms. Jennifer. I answered many questions, honestly and sincerely. They also put me on the phone with a French caller and I felt assured that I had done well.

When we started our training, I was thinking that I would not be able to do it at all because we were overwhelmed with a lot of knowledge about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the company. I was just listening but I understood, I would say, 75-80% of what she was teaching us. I always was asking co-workers questions, even if I was sure of the answers, because I wanted to make sure that I would not give wrong information to our customers.

It’s a big challenge for me because; I have to learn everything about customer service, customer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s well as Univera and its products, policies and procedures.

Fortunately, the majority of the people here are great and they are team workers. Also, this i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learn English, to do a good job, and help a growing company.

In the end, I would like to thank all my co-workers, all the staff at UNIVERA, and specially Ms. Andrea Tillmon. who helped me very much in understanding this job. Also, I would like to thank our Manager, Ms Kristen Neil for being so very patient with me.

Yours truly,



에코네시안 여러분께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음** 을 소개합니다.

글 김민경 대리, (주)이음에프엔비

2006년 6월 29일 (주)이음에프엔비는 '건강한 음식문화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명 아래 설립됐다. 레스토랑 '이음'은 그 사명을 실천하는 첫 번째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이음은 에코네시안과 가족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맛깔스럽고 몸에 이로운 음식과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음식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2006년 10월 9일 이음은 에코네시안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11월 16일부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 일반인 대상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영업을 하고



eum

- 아래 쿠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케이크와 계절 샐러드 중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쿠폰은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저녁 식사 시간에 한 테이블 당 한 장 사용 가능합니다.
- 주문 전에 미리 제시하셔야 합니다.

coupon
Food
Beverage

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점심은 계절, 5대 영양소, 열량, 시절식(時節食) 등을 고려하여 주로 한식단을 준비하되 양식, 일식, 중식 등의 별미도 보태진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대부분의 음식은 지나치게 맵거나 짜지 않도록 했다. 저녁은 슬로푸드 운동의 출발지인 이탈리아 요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식재료와 발효 식품 등을 조화시켜 새로운 건강 식단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정성을 담은 그릇

이음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우리 땅의 흙으로 빚은 그릇에 담아 손님 식탁에 오른다. 이탈리아 요리를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 입맛에 맞게 재창조된 이음만의 식단이므로 가장 한국적인 식기에 담아 그 맛의 진가를 돋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음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기는 사람의 손으로 곱게 빚고, 정성스럽게 칠한 뒤 전통 가마에서 제대로 구워냈다.

넓고 깊게 숨쉬는 공간

복층으로 된 이음은 에코넷센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주로 이용했다. 주 재료는 나무와 벽돌이며 인위적인 채색과 화학 처리는 최대한 배제했다. 또한 근린공원이 마주 보이도록 모든 창은 공원을 향해 넓게 터 놓았다. 인체에 무해한 천연 오일만으로 칠을 한 가구들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음에서는 에코넷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니베라 서번트 리더십 실천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임직원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에코넷센터를 찾는 귀한 손님들과 건강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다. 앞으로 에코네시안에게 새로운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Introducing the Italian Restaurant *Eum*,
a Place for All ECONETians



By Minkyung Kim, Assistant Manager, Eum F&B

On June 29, 2006, Eum F&B Corp. was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creating a happy world through a healthy food culture.” The new restaurant ‘Eum’ is the first of our ambitious projects. By providing delectable yet salutary food and a restful setting not just to ECONETians and their families but to everyone who comes through our doors, Eum aims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a healthy and happy lifestyle for all.

Natural and Healthy Food

Eum first began serving lunch to ECONETians on October 9, 2006. Starting November 16, it has been operating as an Italian restaurant for the public on weekday evenings and Saturdays. The lunch menus for ECONET employees are prepared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season, the five food groups,

calorie content, and more. They consist mainly of Korean dishes, with the addition of various specialties from Western, Japanese, and Chinese cuisines. Also, for the health of ECONET employees, the majority of the dishes are made with a moderate amount of salt and spices. During dinner hours, the menu is based on the cuisine of Italy, the birthplace of the ‘slow food’ movement. By harmonizing Italian recipes with traditional Korean ingredients and fermented foods, Eum will create a new brand of healthful eating.

Lovingly Crafted Earthenware Plates and Bowls

The food prepared at Eum is served in authentic earthenware receptacles. Although Eum’s menu is based on Italian cuisine, each dish has been uniquely recreated to suit Korean palates. For this reason, Eum presents its offerings in the most Korean of wares to enhance their true taste. All tableware used at Eum have been lovingly shaped and carefully painted by human hands, then properly fired in traditional kilns.

A Space that Breathes Deep and Wide

The interior of Eum, composed into two floors, is primarily constructed from environmentally-friendly materials to ensure harmony with the ECONET Center. The main components are wood and brick; artificial paints and chemical treatments were avoided wherever possible. Moreover, all of our wide windows open onto the nearby park, allowing our patrons to enjoy the soothing view of greenery. The furniture, which has been painted with natural oils that are completely innocuous to the human body, emanates a quietly dignified, old-world atmo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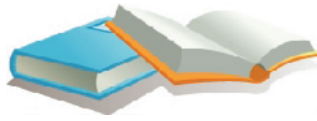
Eum sponsors various events held at the ECONET Center. It is also utilized for Univera’s ‘Servant Leadership’ program. Such efforts reflect our earnest wish to promote harmony among the company’s staff and executives, and to share healthy food with the valued guests who visit the ECONET Center. In the future, Eum will continue to reinvent itself as a place that provides information on new food cultures as well as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all ECONETians.



eum

- If you bring the coupon below, you can enjoy your choice of the cake of the day or a seasonal salad.
- This coupon is valid through March 31, 2007.
- Limited to one coupon per table during dinner hours.
- Must be presented before ordering.





세계 최악의 말썽꾸러기 개와 함께 한 삶 그리고 사랑



글 리사 스테iger, 제품 개발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제목 말리와 나 사진 말리와 나 홈페이지 (www.marleyandme.com)

세계 최악의 말썽꾸러기인 개에 관한 재미있고 유쾌하면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존 그로건의 최신작인 ‘말리와 나(세계 최악의 말썽꾸러기 개와 함께 한 삶 그리고 사랑)’는 웃음과 동시에 독자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말리와 나’는 플로리다 팜비치의 젊은 신혼 부부인 존과 제니 그로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으리으리한 집과 남부러울 것 없는 좋은 직장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이들 부부는 세상사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존과 제니 앞에 어느 날 회오리 바람처럼 말리가 찾아오고 이들의 삶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97파운드에 달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말리는 다른 평범한 개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을 가져옵니다. 비록 문을 부수고 카펫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벽지에 구멍을 내고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침을 흘리는가 하면 값비싼 보석을 삼키는 등 말썽투성이인 말리지만 존과 제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집 안을 온통 엉망으로 만드는 말리의 파괴력이 무한한 만큼 주인 가족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도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존 그로건은 독자를 말리의 모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말리가 두 번이나 개 훈련소에서 쫓겨나고, 영화 세트장을 망가뜨리고, 에터켓을 지키지 않아 개 해변을 폐쇄하는 데 일조하는가 하면 고급 레스토랑의 정원을 파손시키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말리는 우리에게 크게 소리 내어 웃고 삶을 최대한 즐기며 조건 없이 마음껏 사랑할 것을, 그리고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얻는데 있어 가구가 망가지는 것쯤은 아주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말리와 나’는 남녀 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야기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말썽꾸러기이지만 분명 여러분 모두 말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 그 감동을 느껴보세요.

Man's Best Friend, *'The World's Worst Dog'*



By Lisa Staiger, Product Development Coordinator, Univera USA
Book : Marley and Me Photo : (www.marleyandme.com)

Looking for an uplifting, playful story filled with humorous antics of “the world’s worst dog?” John Grogan’s new bestselling book *Marley & Me: Life and Love with the World’s Worst Dog* delivers an emotional rollercoaster of anecdotes guaranteed to make you laugh out loud one moment, and then wipe a tear the next.

The book starts with a young married couple, John and Jenny Grogan in Palm Beach, Florida. They are in love, with a great house, great careers, and not a care in the world. One day, like a whirlwind, Marley enters John and Jenny’s lives and they experience an enormous change in their lives.

As a ninety-seven pound labrador-retriever with strong power and energy, Marley causes more havoc than most dogs can ever dream. He crashes through screen doors, destroys carpets, gouges drywall, fling drool on guests, and eat expensive jewelry, yet through it all there is no limit to the love and devotion Marley has for John, Jenny, and their children. Just as his ruinous powers appear endless, his love and loyalty know no bounds.

Throughout the book, John Grogan takes you along to some of Marley’s craziest adventures. You read about Marley being thrown out of obedience school, twice, destroying the set of a local film production, assisting in closing down a local dog beach due to lack of beach etiquette, and destroying the patio of a ritzy restaurant. However, through it all Marley reminds us all that we shouldn’t be afraid to laugh out loud, live our lives to its fullest, that we should love unconditionally, and that shredded upholstery is a small price to pay for a life-long friend.

Overall, *Marley & Me: Life and Love with the World’s Worst Dog* is an exceptional book that can be enjoyed by all sorts of people. The stories are funny and meaningful, the drama is heartwarming and sincere, and the dog is a complete disaster. But I can guarantee you will fall in love with Marley! Enjoy and happy reading.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유비콤 농장으로 이전

글 전대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

안중근 의사는 연추 하리(煙秋 下里, 현 크라스키노 지역) 추카노프카 천변(川邊)에서 11명의 동지와 함께 왼손 무명지를 끊었다. 그 피로 ‘대한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쓰고 ‘대한독립만세’를 삼창, 조국의 독립 회복과 동양평화 유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늘과 땅에 맹세했다. 그리고는 동의단지회를 결성했다. 한인 의병부대는 하산군의 안치허(현재 포시에트 항구마을)에 근거지를 두고 두만강을 건너 다니며 일본 주둔군을 습격했다. 당시 의병장이었던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이등박문을 처단하러 하얼빈에 가기 전에 안치허 마을, 연해주의 터줏대감 최재형 지사 댁에서 기거하며 사격연습을 했다고 전해진다. 1909년 7월 의병부대는 경원군 경비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가하고, 회령까지 습격하고 돌아왔다. 이 때의 의병운동은 연해주 남우수리 지방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 10월,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성공리에 저격했으며,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이런 의사의 드높은 애국충정과 기상을 기리고자 2001년 10월 18일 광복회와 고려학술문화재단 등은 크라스키노 추카노프카 천변 가까이에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를 횡불과 횡방울 형상으로 건립했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에서 270 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찾아와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그런데 이 기념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념비가 세워진 장소가 천변이다 보니 여름에는 수시로 물이 범람하여 일대가 점점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돌이나 맥주병을 던져 기념판에 크고 작은 흠집이 많이 생겼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념비 초석에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기념비 자체도 한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결국 우려하던 사태가 왔다고 직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당장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급한 마음에 유니젠 러시아에 협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고맙게도 적극적인 회신이 왔다. 기념비를 유니젠 러시아 농장 근처로 옮기고 주변을 잘 조성하여 기념비의 보존은 물론, 안중근 의사를 영구히 기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은 하루하루 다급해졌고, 여기저기 필요한 동의서를 받고서는 바로 크라스키노로 향했다. 차로 4시간 정도 거리다. 차는 쉽 없이 덜컥거리며 뽀얀 먼지를 낀 꼬리처럼 꿈무늬에 매달고는 비포장도로를 내달렸다.

크라스키노 초입에 들어서자 단지동맹 기념비가 눈에 들어왔다. 기념비 상단은 꾸부정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더 기울어지는 것을 막을 요량으로 유니젠 러시아에서 각목으로 사방에 받쳐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저기 그을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기념판 여기저기에도 흠집이 예전보다 더 깊게 패여 있었다. 앞면에 한글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역사 한 토막을 적어 놓아서인지 그나마 작은 상처들뿐이었지만, 뒷면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부분은 깊게 패인 흠집들이 많



훼손된 기념비 The damaged monumnet

았다. 함께 온 동료는 역사의 현장을 온전히 담아가려는 듯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모두들 마음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었는가! 또 얼마나 서러운 시간이었는가! 낯선 이국 땅에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여 손가락까지 절단하며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 목이 메어왔다. 죄스러운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늦은 건 아니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부터 유니젠 러시아의 중장비 여러 대를 앞세우고 기념비로 향했다.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이 간소하게나마 고사상을 준비했다. 현지 시장에는 과일이 모두 일본산이어서 중국산 과실로 준비했고 명태 한 마리도 상에 올렸다.

유니젠 러시아 구 사장의 고에 이어 모두 함께 재배한 뒤 기념비 초석에 막걸리를 흠뿌리고는 돌아가며 음복도 했다.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은 기념비 상단에 흠집이 생기지 않게 면으로 만든 굵은 살바 끈으로 단단하게 묶었다. 그리고는 중장비가 힘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상대로 기념비와 초석이 함께 살짝 들릴 뿐 기념비만 빠져 나오지 않았다. 이리저리 기계가 꺾꺾대며 안간힘을 썼지만 분리되지는 않았다. 마침내 절삭기까지 동원됐다. 파란 불꽃이 사방에 튀며 맹렬히 타 들어갔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콘크리트 접촉제 부분이 절삭기 불꽃에 녹아 박혀 있던 철봉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좌우로 천천히 밀고 당기며 틈새를 벌여나갔다. 결국 크레인에 의해 기념비 상단이 쑥 빠져 나오자, 모두 호호 손에 따뜻한 입김 불고 시린 발 동동거리며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념비는 허공에 높이 들려 대기하던 트럭에 조심스럽게 실렸다. 다음은 초석이었다. 땅에 납작 엎드



기념비 이전을 위한 임시 해체작업 Dismantling the monumnet for its relocation

린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를 긴 쇠막대를 사용해 움직였다. 직원들 여럿이 쇠막대에 올라타자 초석 한 쪽이 허공에 살짝 들렸다. 재빨리 나무를 밀어 넣어 사방을 들어 올린 뒤 밑으로 다시 살바 끈을 넣어 크레인에 매달았다. 크레인은 요란한 굉음을 내며 초석을 번쩍 들어 트럭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트럭의 타이어는 무게를 못 이겨 터질 듯했다. 모두 환호하며 서로를 다독였다. 엄동설한에 차디 찬 쇠붙이와 화강암과의 힘겨루기에서 다친 이 없이 모든 게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었다. 하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에 허전한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애꿎은 사진만 찍어냈다. 그렇게 한나절 작업을 마감하고 철수했다. 일단 새로운 장소가 마련되어 다시 우뚝 세워질 때까지 기념비는 안전한 장소에 잘 모셔졌다.

유니젠 러시아의 농장 사무실로 돌아와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였다. 농장장이 ‘추울 땐 이만한 것이 없다’며 권해주는 보드카 석 잔과 길 떠나는 이에게 마지막으로 권하는 이별주(러시아어로 ‘빠싸쑉’) 한 잔까지 마시고 차에 오르니, 추위에 쫄쫄 얼었던 몸이 취기에 붉은 녹듯 스르르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다. 차에 탄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관없다는 듯 차는 그저 그렇게 앞으로 달리지만 했다. 어느새 지신허도 안치허도 지나갔을 것 같았다. 잠결에 희미하게 고마운 사람들이 보이는 듯했다. 후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어 기쁘다며 환하게 웃던 유니젠 러시아의 구 사장도 보였고, 러시아인 특유의 입심으로 진두지휘하던 ‘블라드미르’ 농장장도 보였으며, 손수 살바 끈을 꿰꿰 동여매며 호호 손을 불던 허대리 얼굴도 보였다. 빨리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보란 듯이 이전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골아 떨어졌다.

이번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특히 유니젠 러시아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다.

Relocation of National Hero Ahn Junggeun's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to Ubigom Farm



By Daewan Jeon, Vladivostok Consul General

Along with 11 compatriots, Korean national hero Ahn Junggeun severed the ring finger of his left hand in what is now Kraskino in Primorsky Province, Russia. The 12 freedom fighters wrote the phrase “Korea’s Independence” using the blood from their fingers, gave three cheers fo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nd vowed to heaven and earth to devote themselves to the recovery of our country’s sovereignty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Asia. They then founded the ‘Donguidanji-hoe,’ an alliance dedicated to fighting for Korea’s freedom. Korea’s freedom fighting force established its base of operations in the harbor village of Posiet in Hasan, and crossed the Tumen River to attack the Japanese troops stationed in the area. Ahn, who led the freedom fighting force at the time, reportedly honed his shooting skills while residing at the home of Choi Jaehyeong, a leading personage in Primorsky Province, in Posiet village prior to leaving for Harbin on his mission to assassinate Ito Hirobumi. In July 1909, the freedom fighting force attacked the Japanese troops in Gyeongwon-gun of Hamgyeongbuk-do, North Korea, and dealt them a heavy blow, and went on to attack Hoeryeong-gun of Hamgyeongbuk-do before returning. At the time, the freedom fighting movement was sweeping across the Ussuriiskogo region of Primorsky Province. And in October of that year, Ahn successfully assassinated Ito Hirobumi in Harbin, and was later executed for his act in Yeosu Prison on March 26, 1910. In commemoration of his lofty patriotism and noble spirit, the Korea Liberation Association, the Koryo Academic and Cultural Foundation, and other groups erected the ‘Ahn Junggeun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in the shape of a torch and a drop of blood in Kraskino on October 18, 2001. Since then, many visitors have traveled to the monument, which stands at a distance of 270 kilometers from Vladivostok, to commemorate Ahn’s dedication to his country. Unfortunately, the monument was located too far outside of

Vladivostok to allow proper maintenance. The site of the monument suffered frequent floods in the summer, which increasingly laid waste to the area. Moreover, thoughtless people had thrown rocks and beer bottles at the monument, damaging and disfiguring the surface. Recently, burn marks had been found on the monument’s foundation stone, and word came from the staff of Unigen Russia that the monument itself was listing noticeably to one side. It was clear that the time had come to take action; something had to be done immediately to remedy the situation. In my urgency, I turned to Unigen Russia to ask for their cooperation. Thankfully, they responded with great enthusiasm. They expressed their wish to move the monument to a location near Unigen Russia’s farm and create a suitable environment for it, not only ensuring the monument’s preservation but also making the site a place where Ahn Junggeun’s noble spirit could be forever remembered. As it turned out, all of us had apparently been thinking the same thing.

Everyday, I felt more and more pressed for time. After obtaining the requisite consent from various quarters, I headed straight for Kraskino. It was a drive of roughly four hours. The car rushed along the unpaved roads, ceaselessly bumping up and down and trailing a long cloud of murky dust.

Upon entering Kraskino, I spotted the Finger-Severing Pact Monument. The upper portion of the monument was tilted, and I could see that people from Unigen Russia had propped up wooden supports all around it to keep it from leaning further. There were clear burn marks in several spots, and there were even deeper scratches and indentations in the monument face than before. The front of the monument, which recounted part of Ahn Junggeun’s history in Korean, had thankfully suffered only light injuries, but the back featuring the Russian



translation bore numerous marks dug deeply into the surface. A colleague who accompanied me kept taking picture after picture, as if to preserve a complete record of the historical site. I’m sure that everyone present felt something boiling up inside of them. What a dire reality our country had faced! What a grievous time it had been! Picturing the twelve youths in the height of passion forced to vent their anger and frustration by severing their fingers in a strange land, I felt my throat tighten with emotion. I was overwhelmed by a sense of guilt. But it was not too late even now. I firmly resolved not to delay matters even for one more day.



The next morning, I headed for the monument with a cavalcade of heavy machinery from Unigen Russia leading the way. The employees at Unigen Russia had laid a simple but carefully prepared table for an offering to the spirits. Because the fruit sold at the local market was all from Japan, they had procured Chinese fruit. There was even a dried pollack.

After a prayer by Unigen Russia President Koo, everyone bowed together and poured grain wine on the foundation stone. We even took turns drinking from the ceremonial wine. In order not to scratch the monument, the staff of Unigen Russia tied the upper portion with thick cords made of cotton. Then, the heavy machinery began to do their work. But, as expected, the monument and foundation stone only lurched a little and refused to come out of the ground. The machines pushed and pulled, exerting all their strength, but to no avail. In the end, the aid of a cutting machine was enlisted. Blue sparks flew in every direction as the cutter burned, but this proved challenging as



well. Then, in the midst of all the effort, the concrete adhesive melted under the heat of the cutter and the iron pole in the ground began to come loose. Seizing the opportunity, all the employees rushed in and pushed and pulled slowly to widen the gap. Finally, when the crane managed to pull out

the upper portion of the monument, everyone who had stood hunched over in the bitter cold, blowing warm breath into their cupped palms, straightened up to clap and cheer. The monument was lifted high above our heads and carefully deposited in the awaiting truck. Next was the foundation stone. The massive slab of granite lying flat on the ground was moved using a long iron pole. When a large group of employees climbed onto the pole, one end of the foundation stone lifted slightly off the ground. We quickly inserted a block of wood underneath and lifted up all four sides. Then, we hung it to the crane using the cotton cords. The crane made loud and jarring noises as it hoisted the foundation stone up and gently laid it down on the truck bed. The tires of the truck seemed about to burst with the weight of its load. Everyone cheered and patted each other on the back. I was relieved that the formidable struggle against cold steel and hard granite in the biting cold had ended well without any injuries. But, unable to suppress a feeling of regret, I found myself glued to the spot, ceaselessly taking pictures with my camera. Thus ended the day’s work and we all withdrew. The monument was moved to a safe location until the day it could stand proudly at its new home.

I returned to the office at Unigen Russia’s farm and thawed my frozen body with a steaming cup of coffee. Getting in the car after three shots of vodka-which the farm manager offered as “the best thing against the cold”- and his final offer of a farewell drink, I felt my tipsiness immediately thawing my body into sleep like the warmth of spring melting a frozen stream. Oblivious to the wishes of its passengers, the car sped ever onward. Before long, it appeared to have passed both Tizinkhe and Posiet. Through the fog of sleep, I seemed to see the faces of everyone who had helped us. I saw the face of Unigen Russia’s President Koo, who had smiled widely as he expressed his delight at being able to do his duty as a descendent. I saw the face of Vladmir, the farm manager, who had directed the proceedings with his distinctively Russian brand of eloquence. I even saw Assistant Manager Heo, who had blown on his hands as he tied the cotton cords tightly around the monument. I plunged into deep sleep with the final thought that I would hasten the preparation for the monument’s new home and proudly hold a relocation ceremony.

I would like to convey my profound gratitude to everyone who lent us their assistance in this endeavor, and to the staff of Unigen Russia in particular.

알림 Announcement

社告

(주)남양의 사명이 네이쳐텍으로 변경되었으며 에코넷 회사 명칭을 아래와 같이 표준화합니다.
에코넷웨이에서도 이번 호부터 표준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에코넷웨이 편집팀

Namyang has changed its brand name into NatureTech and other ECONET companies have standardized their names as below. Starting from this edition of ECONET WAY, the following names will be used.

ECONET Way Editor's Desk

◆ 회사명칭 표준화 / Standard Names

A) ECONET Korea / 에코넷 한국

1. ECONET Korea Holdings / 에코넷 한국 홀딩스
2. Univera Korea / 유니베라 한국
3. Unigen Korea / 유니젠 한국
4. NatureTech / 네이쳐텍

B) ECONET USA / 에코넷 미국

1. ECONET USA Holdings / 에코넷 미국 홀딩스
2. Aloecorp USA / 알로콧 미국
3. Unigen USA / 유니젠 미국
4. Univera USA / 유니베라 미국
5. Hilltop Gardens / 힐탑가든

C) Unigen Russia / 유니젠 러시아

D)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1 시무식

에코넷 한국 법인들의 합동 시무식이 2007년 1월 2일 에코넷 센터에서 직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병훈 총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2006년 에코네시안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2007년 한 해는 '에코넷이 추진해온 사업들이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행사는 지난 2006년 성과를 소개하고 자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에코넷 한국이 거둔 주요 10대 뉴스가 선정되었는데 각 사의 대외 수상 내용과 신제품이 소개될 때 직원들은 큰 박수로 기쁨을 나눴다. 이어 2006 모범 사원에 대한 표창과 에코넷 웨이 신임기자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되었다. 표창내용은 에코넷 한국의 영어교육 우수상, SVC 교육(Shared Value Course) 우수상, 에코넷 웨이 우수 기자상 등이며, 신임 에코넷 웨이 기자로는 유니베라 한국의 김정미 대리가 임명되었다. 공식행사 후에는 전 임

직원이 에코넷 센터 내 이음식당에서 떡국을 함께 먹었는데, 서로서로 신년 덕담을 나누면서 2007년이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Opening Ceremony for 2007



On January 2, 2007, the joint New Year's opening ceremony for ECONET Korea companies was held at the ECONET Center, amid the participation of over 220 employees. In the New Year's address, Chairman Bill Lee expressed his appreciation for ECONETians' hard work in 2006 and stressed that 2007 must be "a year for strengthening and enriching the various businesses the ECONET has thus far been pursuing."

The ceremony began with the introduction and celebration of ECONET Korea's achievements in 2006. During the announcement of the top 10 achievements, the introduction of each new product and the awards it received within and outside Korea was greeted by joyous and enthusiastic applause. This was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commendations for outstanding employees in 2006 and appointment letters for new ECONET Way reporters. The honors given out on this day included Outstanding Achievement in English Education, Outstanding Achievement in SVC (Shared Value Course) Training, and Outstanding Journalist for ECONET Way. In addition, Univera Korea's Assistant Manager Kyungmi Kim was newly appointed as a reporter for ECONET Way. After the official ceremony, all staff and executives sat

down for a traditional New Year's meal at the restaurant Eum, located inside the ECONET Center. Exchanging encouragements and advice for the New Year, everyone reaffirmed their dedication to making 2007 a resounding success.

2 에코넷 비전집 증보판 발행

2006년 11월 21일 에코넷 비전집(한글본)의 증보판이 발행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2004년 10월 초판본에서 에코넷 문화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된 서번트 리더십과 2003년부터 추진해온 에코넷 3단계 전략이 비전집에 추가되었다. 또한 지난해 유니베라의 CI통합과 에코넷 CI 변경이 적용되어 그 동안 에코넷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한편, 개정된 에코넷 비전집 한글본은 현재 영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내에 영어판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Publication of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f ECONET Vision

The revised and expanded edition of ECONET Vision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on November 21, 2006. Newly included in this updated edition are sections on "Servant Leadership," which was adopted as the basic tenet of the ECONET's corporate culture in the original edition of October 2004, and the "ECONET Three-Stage Strategy," implemented as of 2003.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Univera's integrated CI and the ECONET's amended CI reflects the changes that took place in the ECONET environment over the past few years. The Korean edition of ECONET Vision is currently being translated into English, for publication in 2007.

3 에코넷 웨이 기자단 워크숍

2006년 12월 5일 한국 에코넷 웨이 기자단은 에코넷 웨이의 발전방안과 그 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기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보협회 김흥기 회장과 아리랑TV 오제중 작가를 섭외하여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더욱 향상된 2007년도 에코넷 웨이를 기약했다.

ECONET Way Reporters Workshop



On December 5, 2006, the reporters of ECONET Way participated in a workshop on the publication's future direction and improvements. To help enhance the journalistic expertise of ECONET Way's staff, the workshop invited Chairman Heungki Kim of the Business Journalism Association and writer Jejung Oh of Arirang TV Media to lead a program that focused primarily on practical training.

A brainstorming session was also held, to ensure a new and improved ECONET Way in 2007.

4 2007 에코넷 임원 목표설정 워크숍 및 조인식



작년 12월 22일 총괄사장을 비롯한 에코넷 한국의 전 임원들은 임원목표설정 워크숍에서 새해 경영목표와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부문 임원들의 사업 계획 발표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확정된 새해 경영목표와 전략에 합의하는 조인식이 12월 28일에 있었다. 이로써 '에코넷

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한 전 임원들은 목표달성 위해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2007 ECONET Executive Goal-Setting Workshop and Signing Ceremony



Last December 22, ECONET Korea's executives including chairman, Bill Lee, established management targets and strategies for the new year. At this workshop, each department managing director's business plan and major pending issues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management targets and strategies for the year 2007, there was a signing ceremony on December 28th. In that, we are now fully prepared to strive for ECONET's next 30 years to come.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5 매출 1000억 돌파 기념 행사



유니베라는 지난해 매출 1000억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지난 11월 20일 에코넷 센터에서 1000억 돌

파 기념 비어파티를 가졌으며, 12월 1일부터 2박 3일 동안 전 직원이 북경에서 사업계획 워크숍을 가졌다. 직원 모두 2007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힘차게 도약하자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Ceremony Commemorating 100 Billion Won in Sales



In 2006, Univera reached an important milestone by achieving over 100 million dollars in sales. A ceremony celebrating the momentous occasion took place at the ECONET Center on November 20, followed by a three-day business planning workshop for the entire staff, which began on December 1 in Beijing. All who participated affirmed their dedication to building on the achievements of 2006 for an even more successful 2007.

6 소비자의 날 부총리 표창



유니베라가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추진해온 CCMS(소비자불만자율관리 프로그램) 도입 첫 해에 큰 성과를 남겼다. 지난 2006년

12월 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제 1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소비자 인식변화,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들과 관련된 활동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그 동안 유니베라 한국이 CCMS(소비자불만자율

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국내 소비자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2006년에는 국내 기업 중에서 유니베라와 삼성카드만 수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onsumer Rights Day Honors from Deputy Prime Minister

Univera's Consumer Complaint Monitoring System (CCMS) that aims at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has achieved great results in its inaugural year. At the ceremony for the 11th Consumer Rights Day, which took place on December 1 at the annex of the Government Complex, Univera received a Ministerial Commendation from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 Economy Okyu Kwon.

This award that present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demonstrate excellence in consumer-related activities, including consumer protection, enhancement of consumer awareness, consumer education, etc. recognizes Univera Korea's persistent efforts to improve consumer rights in Korea, especially by adopting the aforementioned CCMS. The award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Univera and Samsung Card were the only domestic businesses to be thus honored in 2006.

7 청강 평전 출판물 부문 우수상 수상



2006년 11월 6일에 발행된 평전 '땅 위에 별을 심은 사람' 청강 이연호를 기리며'가 지난해 12월 12일 한국 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판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Late Chairman Lee's Biography Honored with Publication Excellence Award

On December 12, 2006, the biography He Who Planted Stars on Earth: In Memory of Chungkang Yunho Lee, published this past November 6, received an award for excellence in publication from the Korea Business Journalism Association.

8 정품SW 사용 대상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지난 12월 26일 유니베라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방문실사를 통해 선정된 유니베라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SW의 정품 사용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a Receives Information Minister's Commendation for Licensed Software Use

On December 26, Univera received a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for demonstrating excellence in the use and maintenance of officially licensed software. Univera, which was honored with the award following an on-site survey, boasts 100% usage of licensed software throughout the company.

9 전국 대리점 사장 세미나 개최



1월 17,18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유니베라 전국 대리점 사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6년도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대리점과 UP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2007년 유니베라의 경영방침인 'JUMP UP'에 맞춰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는

본사와 대리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광은 유니베라의 지속적인 성장에 박수를 보내는 듯했다.

Seminar for Univera Retail Outlet Managers

A seminar for the managers of Univera retail stores nationwide was held on January 17 through 18 in Jeju Island. At this year's seminar, awards were presented to retailers and UPs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growth and advancement of Univera in 2006. Participants also vowed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and benefit between retailers and the main company in accordance with Univera's new management policy for 2007, "JUMP UP." The sparkling sea and breathtaking landscape of Jeju Island seemed to applaud Univera's continued growth and prosperity.

10 주 5일제 실시

유니베라는 2007년 1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한다. 이는 임직원들 근로의욕 고취 및 동기를 부여하고,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및 경영 선진화를 촉진하면서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통해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40시간)근무제 도입에 맞는 회사 규정 정비와 관련 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Institution of Five-Day Work Week

Univera is instituting the five-day work week starting January 1, 2007. The new policy aims at boosting the staff and executives' motivation and enthusiasm for work, raising the efficiency of manpower management, and achieving advanced management practices, and promoting self-development through effective time management. Univera plans to update company regula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to best accommodate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 week (40 hours) policy in compli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네이처텍 / NatureTech

11 한국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지난 2006년 11월 30일 제4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네이처텍(구 남양)이 수출 천만불 탑을 수상하였다. 그 동안 네이처텍은 수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05년에는 동종 업계 최초로 삼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

으며, 지난해에는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수출 실적인 1천 5백만불 달성에 대한 수상이다.

수출탑은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며, 연간 수출 실적에 대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다.

NatureTech Receives First "\$10 Billion Export Tower Award" in Korean Health Foods Industry



On November 11, 2006, at the 43rd annual Trade Day ceremony, NatureTech (formerly Namyang) was honored with the \$10 Billion Export Tower

Award. Since its establishment, NatureTech has worked tirelessly to increase its overseas export. Thanks to such effort, in 2005, it became the first company to receive the \$3 Billion Export Tower Award in the dietary supplement industry, followed by the \$10 Billion Export Tower Award in 2006. This latest award recognizes NatureTech's achievement of \$15 billion in sales between July 2005 and June 2006.

The Export Tower Awards, administer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are presented each year to companies that demonstrate excellence in export in acknowledgement of their contributions to the Korean economy.

12 2006년 6-시그마 분임조 단합대회

2006년 '6-시그마 경영혁신 활동' 중 현장 6-Sigma인 명소 분임조의 단합과 6-Sigma의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과 함께 단합 대회가 있었다. 11월 18일 현장 6-Sigma 명소 8개 분임조(질주, 깔꿈이, 한마음, 남양열차, 취급주의, 애벌레, 독수리, 개미조)의 우수사례가 발표된 가운데 분임조 활동은 생산역량 강화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생산 프로세스 개선활동으로 원가절감 실현을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Sigma Circle Presentation for 2006

A unity rally to promote the vitalization of 6-Sigma activities and mutual solidarity among on-site 6-Sigma circles, which formed part of the "6-Sigma Management Innovation" project for 2006, took place on November 18. Examples of excellence within the eight on-site 6-Sigma circles ("Full Speed Ahead," "Spic-and-Span," "One Heart," "Namyang Express," "Handle with Care," "Caterpillar," "Eagle," and "Ants") were introduced on this day. The objective of the 6-Sigma circles is to improve quality by boosting production capability and to reduce costs through production process enhancement.

13 NatureTech 현판식 및 NatureTech 한마당 행사 실시



지난 1월 24일 (주)남양은 새로운 대표 브랜드 NatureTech 현판식과 “NatureTech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6-Sigma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성과포상 및 지난해에 노고를 치하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이병훈 총괄사장과 3사 임원진이 함께 자리하여 명소활동을 직접 관람하였다. NatureTech은 자연과학의 의미로서 자연과 과학, 인간의 조화로우름을 상징하는 세계 제1의 천연물 제조 전문기업으로 박차를 가 할 것이다.

NatureTech Plaque Dedication Ceremony and NatureTech Joint Ceremony



Last January 24, NAM YANG's new brand NatureTech held a joint plaque dedication ceremony with NatureTech. At this auspicious event, 6-Sigma, which are activities surrounding management reform regarding employment bonuses for last year's hard work, received encouraging signs for adoption. General President Bill Lee and three company executives graced the occasion with their presence.

NatureTech, which signifies a harmony of nature and science, is racing to become a specialty business that is the number one world-wide symbol in manufacturing with natural substances.

14 네이처텍 조직변경

2본부 1실 7팀 ⇒ 4본부(3본부 1실) 9팀 조직으로 변경되었고, 특정과제 수행을 위한 TFT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ERP PI팀 및 CFTeam은 TFT로 운영)

Changes in NatureTech Organization

Reorganized from 2 divisions, 2 labs, and 7 teams to 4 divisions (3 divisions, 1 lab) and 9 teams
- Task Force Teams (TFT) for specific projects will be operated on a flexible basis (ERP PI Team and CF Team to be operated as TFT).

15 네이처텍, 아모레퍼시픽社로부터 4억 주문



네이처텍은 아모레퍼시픽社로부터 최근 출시된 어린이 건강식품 ‘해피키즈 홍삼’에 대한 4억원 규모의 생산 주문을 받았다. 이번 주문은 국내 OEM업체로서는 대규모라는 의미가 있어 이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함께 가졌다.

NatureTech AMORE PACIFIC Receives \$400,000 Worth of Orders

NatureTech AMORE PACIFIC's new health food, “Happy Kids Red Ginseng” received \$400,000 worth of orders. The value of the domestic order, in terms of an OEM enterprise, is significant. Consequently, there will also be a ceremony to mark this special event.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16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

유니젠 한국은 2007년 조직개편과 보직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개편으로 유니젠 한국은 각 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관리를 효율화하여 보다 탄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조직개편

- 신소재사업부 ⇒ 신소재사업본부
- 연구기획관리본부 ⇒ 연구기획관리본부 폐지
- 연구개발관리팀 / 연구기획관리본부 ⇒ 연구기획관리팀 / 연구소

인사 및 보직이동

- 총괄상무 / 연구소장(겸직) ⇒ 연구소장
- 연구기획관리본부장 ⇒ 신소재사업본부장

Restructuring and Personnel Changes

Unigen Korea has implemented restructuring and personnel changes for 2007. The company now enjoys a firmer structure, with strengthened functionality for each division and increased efficiency in work management.

Restructuring

- Natural Products Business Department ⇒ New Biomaterials Business Division
- 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Division ⇒ Discontinued
- R&D Management Team / 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Division ⇒ 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Team / Institute

Personnel Changes

- Managing Vice President / Vice President of R&D (dual position) ⇒ Vice President R&D
- Director of Research Planning and Management ⇒ Director of New Biomaterials Business

17 인도 원물 실사

지난 2006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유니젠 한국의 김동선 수석연구원, 최재영 차장 그리고 미국 유니젠의 웬웬 마(Wenwen Ma)박사는 유니베스틴 원료의 품질보증 및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인도 현지 공급업체의 시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생산 시설 및 생산, 품질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고품질의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On-Site Survey in India

From November 9 through 15 of last year, Senior Researcher Dongseon Kim and Assistant Department Manager Jaeyoung Choi of Unigen Korea and Dr. Wenwen Ma of Unigen USA carried out an on-site survey of an Indian supplier's local production facilities to ensure the quality and stable supply of Uninvestin. By familiarizing itself with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production/quality management practices in India, Unigen has become capable of procuring a higher quality of raw ingredients.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18 자선 경매 행사



에코넷 미국의 29개 부서들이 각자 독특한 주제에 맞춰 선물 바구니를 만들어 자선 경매에 참가했다. 유니베라 미국 재정팀의 ‘모두 눈에 간헐어요’와 에

코넷 미국 홀딩스 법률팀의 ‘모든 신데렐라는 마차가 필요하다’가 가장 독특하고 독창적인 선물 바구니로 뽑혔다. 이번 자선 경매에서 모금된 3천 달러는 모두 지역 자선 단체에 기부됐다. 또한 에코넷 미국은 다른 지역 사업체들과 함께 ‘Toys for Tots’를 위해 15,000개의 장난감과 현금을 모았는데, 이는 모든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CONET USA's Serve First Silent Auction



Twenty-nine departments across our ECONET family of companies created uniquely themed baskets and held a Silent Auction for charity. “All Snowed In” by the Univera USA Finance Team and “Every Cinderella Needs A Coach” by the ECONET USA Holdings Legal Team were selected as the most unique and creative baskets.

The Silent Auction raised approximately \$3,000, which was donated to a local charity. ECONET USA also joined hands with other local businesses and helped to collect 15,000 toys and cash donations for “Toys for Tots” which will be gifted to the children in our community.

19 크리스마스 파티



지난 12월 8일 레드 라이언 호텔에서 180여명의 직원과 손님들이 참가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다. 저녁식사 후 상품 추첨과 레이시의 캠퍼스 개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크리스마스 파티 위원회는 이미 2007년 12월 7일에 있을 내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CONET USA Christmas Party



The annual ECONET USA Christmas party was held on Friday, December 8, 2006, in the ballroom of the Red Lion Hotel. Over 180 employees and guests attended. Dinner was delicious and was followed by great door prizes, a wonderful slide present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campus in Lacey, and then dancing into the night. The Christmas Committee did a great job and rumor has it that they're already working on holiday plans for December 7, 2007!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0 120만 달러 상당의 에센셜스를 비타민 엔젤스에 기부

유니베라 미국은 120달러 상당의 에센셜스는 비타민 엔젤스에 기부했다. 비타민 엔젤스는 이를 룰러빌 지역의 초등학교에 제공함으로써 미국 비



타민 구호단체의 미시시피 델타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되었

다. 에코넷 미국 홀딩스의 데렉 홀 부회장은 ‘영양 상태가 부실한 어린이들을 도우려는 우리의 작은 성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을 보다 건강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vitaminangel.org>와 <http://www.vitaminrelief.org>에 접속하면 비타민 엔젤스와 미국 비타민 구호단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다.

Univera USA contributed \$1.2 million in their 'Essentials' products for Vitamin Angels

Vitamin Angels joined Vitamin Relief USA's Mississippi Delta Nutrition program by providing a 'super food' nutrition drink to the Ruleville Elementary School district. Univera USA contributed \$1.2 million in their 'Essentials' product to help launch this effort. “This is just part of our effort to address malnutrition in children - the world's most vulnerable population. It is part of our commitment to making this world a healthier place”, said Derek Hall, Vice-Chairman and CEO of ECONET USA Holdings. You can learn more about Vitamin Angels and Vitamin Relief USA at <http://www.vitaminangel.org/> and <http://www.vitaminrelief.org/>

21 룰러빌 어린이들 마음의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선물

유니베라 미국이 미시시피의 시골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무려 천 개가 넘는 선물들이 빈곤을 겪고 있는 룰러빌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작업을 준비한 유니베라 Associate들은 미국 각 지역의 Associate들과 연락하여 개별 포장된 선물들이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니베라 미국은 학교장들에게 선물을 못 받는 어린이가 없도록 선물 카드를 전달했다.

Generosity Brightens Holidays for Children in Ruleville, Mississippi

Univera USA brightened the holidays for children in rural Mississippi. Over a thousand gifts went to children at Ruleville Elementary and surrounding schools, which are in an area of extreme poverty. Univera Associates initiated the program and communicated it across the United States resulting in new, individually wrapped gifts arriving in time for Christmas. Univera USA supported the program through gift cards given to school principals to ensure that no child was left out of the gift giving.

22 대구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 동아시아 골프대회' 지원



대구에서 열린 제1회 스페셜 올림픽 동아시아 골프 대회에 제품을 제공했다. 유니베라 미국의 Senior Associate인 멀리 알버트씨가 이 대회에 참가한 유일한 미국인인 오레건 살렘의 덕 나이스를 동반했다. 덕은 후양 싱-한과 함께 이 대회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Univera USA Supported Special Olympics Golf Tournament Held in Daegu, South Korea



Univera USA supplied products for the Special Olympians at the 1st East Asia Special Olympics Golf Tournament held in Daegu, South Korea. Univera USA's Senior Associate, Merle Alberts, accompanied the only US Special Olympian, Doug Nice, of Salem, Oregon who shared the honors of first place with Huang, Hsing-Han.

알로콥 미국 & 힐탑가든 / Aloecorp USA & Hilltop Gardens

23 텍사스에서 보낸 추수감사절



알로콥 미국과 힐탑 가든의 직원들은 11월 17일에 추수감사절 점심식사를 가졌다. 힐탑 가든의 농장 직원들이 이 특별한 자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과 후식을 준비했다. 주메뉴는 물론 칠면조와 햄이었다. 멕시코의 Director of Operations 어니스토 살가도와 에코넷 미국의 IT Director 그리고 오라클 컨설턴트인 파라샐트가 이 자리를 함께 했다.

Thanksgiving Luncheon in Texas



On November 17, 2006,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staff enjoyed a special Thanksgiving Luncheon. The Hilltop Gardens Farm group cooked savory dishes and desserts for this special occasion. The main dishes were, of course, Turkey and Ham. Some special guests who also enjoyed the succulent meal were Ernesto Salgado, Director of Operations in Mexico, Curtis Bryan, ECONET USA IT Director, and Prashant, Oracle Consultant.

24 크리스마스 파티



12월 16일 토요일 알로콥 미국과 힐탑 가든의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다. 파티는 라이포드에 리셉션 홀에서 열렸으며 배우자나 손님을 동반한 직원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다. 맛있는 음식이 제공된 후 직원들의 선물 교환이 있었다. 선물 교환이 끝난 뒤에는 모두 부드러운 별빛이 흐르는 안뜰로 나가 춤을 추었다. 테야노, 살사, 70년대 음악, 그리고 록앤롤까지 여러 음악이 쉴새 없이 연주되었다. 또한 저녁 내내 많은 상품 추첨

Aloecorp and Hilltop Gardens Christmas Party in Texas

On Saturday, December 16, 2006, Aloecorp USA and Hilltop Gardens held their Christmas Party. The party was held at a beautiful, historical reception hall in the Lyford area. Employees arrived with their spouses and guests in their best attire. After the delicious dinner was served, the employees exchanged Christmas gifts. Once the

gift exchange was over, everyone headed out to the courtyard to dance under the stars. They danced everything from Tejano, Salsa, 70's, and Rock-N-Roll. Great prizes were also raffled throughout the evening.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25 10일 동안의 연말연시 연휴

2006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7년 새해를 맞이하는 러시아 연말연시 풍습도 바쁘게 준비되었다. 2006년 연말연시 연휴가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이어졌다. 연말연시 연휴는 러시아 정부가 정하여 국민들에게 공포한다. 러시아의 연말연시 연휴가 긴 이유는 첫째, 러시아의 광범위한 영토에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로만 7일이 소요된다. 만약에 모스크바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돌아와야 한다면 2주일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의 월력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12월 25일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1월 7일(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 것이다. 따라서 2007년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관계로 8일(월요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결정한 것이다. 유니젠 러시아의 직원들은 29일까지 2006년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연휴에 들어

가 2007년 1월 9일부터 출근하여 새로운 한 해 업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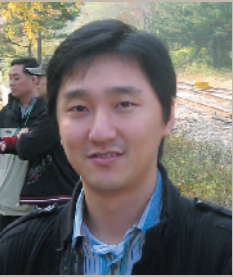
A 10-Day Holiday

During the transition from 2006 to 2007, busy festivities were underway in accordance with Russian holiday traditions. The New Year's holiday spanned 10 days from December 30, 2006 to January 8, 2007. Each year, the Russian government designates the dates for this traditional holiday.

The reason why the New Year's holiday is so long in Russia lies first and foremost in the expansiveness of its territory. Since it takes seven days to travel by train from Vladivostok to Moscow, visiting family in Moscow and returning to Vladivostok requires at least two full weeks. Second, Russia celebrates Christmas according to the Russian Orthodox Church's calendar. This means that Christmas falls not on December 25, but on January 7. Because Christmas in 2007 happened to fall on a Sunday,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following Monday, January 8, as the official Christmas holiday. Unigen Russia's staff wrapped up their work for 2006 on December 29 and enjoyed a leisurely holiday before kicking off the new business year on January 9, 2007.

ECONET Subsidiary News

신입사원 / New Hire



▲ 송형중 대리, 재무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Hyungjong Song, Assistant Manager, Finance Team, ECONET Korea Holdings



▲ 이지희 대리, BM팀, 유니베라 한국/
Jihi Lee, Assistant Manager, BM Team, Univera Korea



▲ 이경준, 영업1팀, 네이처텍/
Kyoungjun Lee, Sales 1 Team, NatureTech



▲ 게일 메리트-스미스, 인사 과장, 에코넷 미국 홀딩스/
Gail Merritt-Smith, Human Resources Generalist Manager, ECONET USA Holdings



▲ 테레사 존슨, 재정 회계원, 유니베라 미국/
Theresa Johnson, Financial Accountant, Univera USA



▲ 아멘다 데이비스, 유통과 직원, 유니베라 미국/
Amanda Davis, Distribution Clerk, Univera USA



▲ 메레디스 버킵, 상임 교육 과장, 유니베라 미국/
Meredith Berkich, Senior Training Manager, Univera USA



▲ 테리 베이커, 고객관리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Teri Baker, Director of Customer Care, Univera USA



▲ 세드릭 스몰, 고객관리 팀원(1급), 유니베라 미국/
Cedric Small, CSR I, Univera USA



▲ 라리사 패블릭, 제품 개발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Larisa Pavlick, Director of Product Development, Univera USA

부서이동 소개 / Transfers



◀ 공승식 팀장, 자금팀, 에코넷 한국 홀딩스 ⇨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Seungsik Gong, Team Manager, Finance Team, ECONET Korea Holdings ⇨ Strategy & Planning Division, General Management Team, Univera Korea



◀ 조준용 본부장, 교육본부, 유니베라 한국 ⇨ 팀장,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unyong Cho, Division Manager, Education Division, Univera, Korea ⇨ Team Manager, Strategy & Planning Division, Strategy &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이진우 대리, 영업본부 경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팀장, 영업본부 대구경북팀, 유니베라 한국
Jinwoo Lee,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Kyungin Sales Team, Univera, Korea ⇨ Team Manager, Sales Division Daegukyungbuk Sales Team, Univera, Korea



◀ 이룰 대리, 영업본부 부산경남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Ryul Lee,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Busankyung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ales Panning Team, Univera, Korea



◀ 신 흥 대리,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경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Heung Shin,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Seoul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Kyungin Sales Team, Univera, Korea



◀ 김경식 팀장, 영업본부 부산경남팀, 유니베라 한국 ⇨ 본부장, 교육본부, 유니베라 한국
Kyungsik Kim, Team Manager, Busankyung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Division Manager, Education Division, Univera Korea



◀ 신영익 대리, 영업본부 중부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팀장, 영업본부 광주전남팀, 유니베라 한국
Younguk Shin,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Jungbu Sales Team, Univera, Korea ⇨ Team Manager, Sales Division Gwangjujun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김중찬 팀장, 영업본부 대구경북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부산경남팀, 유니베라 한국
Jungchan Kim, Team Manager, Sales Division Daegukyungbuk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Busankyung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이원석 대리,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Wonseok Lee,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Sales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Marketing Division, Marketing Panning Team, Univera, Korea



◀ 강지철 대리, 영업본부 경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Jidcheol Kang, Assistant Manager, Sales Division, Kyungin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eoul Sales Team, Univera, Korea

승진 / Promotions

한국3사의 승진자 소식은 2월 1일 발표로 다음 4월호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he promotion list of our three companies in Korea will be announced on February 1, 2007.
It will be carried in this April's ECONET WAY.



◀ 레베카 보첩, 컴플라이언스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홀딩스 ⇨ 컴플라이언스 매니저, 에코넷 미국 홀딩스
Rebecca Beauchamp, Compliance Coordinator, ECONET USA Holdings ⇨ Compliance Manager, ECONET USA Holdings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의 부서이동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se jobs have Promotions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토드 쉘스키, 회계 과장, 유니베라 미국 ⇨ 회계 재정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Todd Shumsky, Accounting Manager, Univera USA ⇨ Director of Accounting and Finance, Univera USA

▶ 웬웬 마, 품질 관리 부서 상무보, 유니젠 미국 ⇨ 품질 관리 상무, 유니젠 미국
Wenwen Ma, Director of Quality Services, Unigen USA ⇨ Vice President of Quality Services, Unige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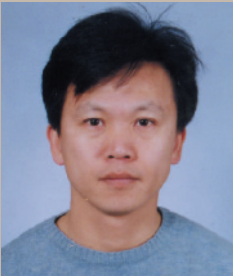
Promotions



◀ 김봉호, 영업본부 중부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광주전남팀, 유니베라 한국
Bongho Kim, Sales Division, Jungbu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Gwangjujeonnam Sales Team, Univera, Korea



◀ 박석신,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경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Seokshin Park, Sales Division, Seoul Sales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Kyungin Sales Team, Univera, Korea



◀ 박성완 팀장, 경영지원본부 ERP P팀, 네이처텍 ⇨ 과장,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Seongwan Park, Team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ERP PI Team, NatureTech ⇨ Manger,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박상섭 과장,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 팀장, 생산본부 공무팀, 네이처텍
Sangsub Park,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 Team Manger, Production Division, Engineer Team, NatureTech



◀ 유병용 대리, 경영정보팀(에코넷 한국 홀딩스 파견),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Byungyong You, Assistant Manager, IT Shared Service Team(ECONET Korea Holdings),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ales Panning Team, Univera Korea



◀ 조성훈 대리,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Seonghoon Cho, , Assistant Manager, Marketing Division, Marketing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Seoul Sales Team, Univera Korea



◀ 김재승 과장, 경영지원본부 기술영업팀, 네이처텍 ⇨ 팀장, 영업본부 영업 2팀, 네이처텍
Jaeseung Kim,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Technology Sales Team, NatureTech ⇨ Team Manger, Sales Division, Sales 2Team, NatureTech



◀ 이연석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Yeonseok Lee, Asistant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김우진,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영업본부 경인영업팀, 유니베라 한국
Woojin Kim, Strategy & Planning Division, General Mangement Team, Univera Korea ⇨ Sales Division, Kyungin Sales Team, Univera Korea



◀ 민지희, 교육본부 교육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 유니베라 한국
Jihee Min, Education Division, Education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Strategy & Planning Division, Strategy & Planning Team, Univera Korea



◀ 정봉수 대리, 경영지원본부 ERP P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Bongsu Jong, Asistant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ERP PI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우길종 대리,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Kiljong Woo, Asistant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신중현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네이처텍 ⇨ 영업본부, 네이처텍
Junghyun Shin, Division Mana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NatureTech ⇨ Sales Division, NatureTech



◀ 안기억 팀장, 경영전략본부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본부장, 경영지원본부, 네이처텍
Kieuk Ahan, Team Manager, Strategy & Planning Division, General Management Team, Univera Korea ⇨ Division Mana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 NatureTech



◀ 박연호 주임, 경영지원본부 기술영업팀, 네이처텍 ⇨ 영업본부 영업 2팀, 네이처텍
Hoya Park, Chief, General Mangement Division, Technology Sales Team, NatureTech ⇨ Sales Division, Sales 2 Team, NatureTech



◀ 윤성원 주임, 경영지원본부 ERP P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Sungwon Yoon, Chief, General Mangement Division, ERP PI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예정수 팀장, 경영지원본부 기술영업팀, 네이처텍 ⇨ 영업본부 영업 1팀, 네이처텍
Jeongsu Yea, Team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Technology Sales Team, NatureTech ⇨ Sales Division, Sales 1Team, NatureTech



◀ 허영주 팀장,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Youngjoo Heo, Team Manger, General Man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박종민 주임, 경영지원본부 SCM팀, 네이처텍 ⇨ 영업본부 영업 1팀, 네이처텍
Jongmin Park, Chief, General Mangement Division, SCM Team, NatureTech ⇨ Sales Division, Sales 1 Team, NatureTech



◀ 유승환, 생산본부, 품질혁신팀, 네이처텍 ⇨ 연구개발팀, 네이처텍
Seunghwan Yoo, Production Division, Quality Innovation Team, NatureTech ⇨ Research Development Team, NatureTech

Transfers

Transfers



◀ 김경신 사원, 경영지원본부 ERP PI팀, 네이처텍 ⇨ 경영지원팀, 네이처텍
Kyungsun Kim, General Mangement Division, ERP PI Team, NatureTech ⇨ Management Support Team, NatureTech



◀ 김태옥 사원, 경영지원본부 기술영업팀, 네이처텍 ⇨ 영업본부 영업 1팀, 네이처텍
Teak Kim, General Mangement Division, Technology Sales Team, NatureTech ⇨ Sales Division, Sales 1Team, NatureTech



◀ 게일 메릿-스미스, 인사 과장, 에코넷 미국 홀딩스 ⇨ 인사과장, 유니베라 미국
Gail Merritt-Smith, Manager of Human Resources, ECONET USA Holdings ⇨ Manager of Human Resources, Univera USA



◀ 신범순 사원,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팀, 네이처텍 ⇨ 생산본부 공무팀, 네이처텍
Beomshin Soon, General Mangement Division, Management Planning Team, NatureTech ⇨ Production Division, Engineer Team, NatureTech



◀ 차지민, 본부장, 연구기획관리본부, 유니젠 한국 ⇨ 신소재사업본부, 유니젠 한국
Jimin Cha, R&D Strategy Division, Unigen Korea ⇨ Natural Products Business Division, Unigen Korea



◀ 리처드 코넬, 규제 관계 및 품질관리 매니저, 에코넷 미국 홀딩스 ⇨ 품질관리 및 규제 관계 매니저, 유니베라 미국
Richard Conant, Manger of Regulatory Affairs and QA, ECONET USA Holdings ⇨ Manger of Quality Assurance and Regulatory Affairs, Univera USA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의 부서이동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se jobs have rotated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밥 풀턴, 임원행정 보조, 에코넷 미국 홀딩스 ⇨ 지역 사회 관계 코디네이터, 에코넷 미국 홀딩스
Barb Fulton, Executive Assistant, ECONET USA Holdings ⇨ Community Outreach Coordinator, ECONET USA Holdings

Transfers

경조사 소식 /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 축하합니다.

1) 지난 12월 5일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유병용 대리의 예쁜 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2) 지난 12월 7일 마케팅본부 BM팀 이주연 과장의 예쁜 딸 출산을 축하합니다.

3) 지난 12월 17일 영업본부 서울영업팀 조성훈 대리의 건강한 아들 출산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Byongyong Yoo(Sales Panning Team) on the birth of his lovely daughter on December 5, 2006.

2) Congratulations to Manager Jooyoun Yi (BM Team) on the birth of her lovely daughter on December 7, 2006.

3)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Sunghoon Cho (Seoul Sales Team) on the birth of his lovely son on December 17, 200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지난 12월17일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유병용 대리의 조모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지난 12월 21일 유니베라 김영환 사장님의 장인상이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지난 1월 9일 마케팅본부 마케팅기획팀 이혜정 사원의 조 부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1) The grandmother of Assistant Manager Byongyong Yoo(Sales Panning Team) passed away on December 17, 2006.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2) The father-in-law of President Youngwhan Kim(President) passed away on December 21, 2006.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3) The grandfather of Staff Hyejung Lee(Marketing Planning team) passed away on January 9, 2006. We offer

our deepest condolences.

네이처텍 / NatureTech

◆ 축하합니다.



1) 지난 11월 1일 생산기술팀 김정희 대리의 건강한 아들 출산을 축하합니다.

2) 지난 12월 3일 경영기획팀 신진숙 사원 결혼을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Assistant Manager Jeonghee Kim (Production Technology Team) on the birth of a healthy son on November 1, 2006.

2) Best wishes for Jinsook Shin (Management Planning Team) on her recent wedding, which took place this past December 3, 2006.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생산기술팀 박상순 대리 빙모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Please accept our deepest condolences

• The mother-in-law of Assistant Manager Sangsoon Park (Production Technology Team) has recently passed. We extend our deepest condolences.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 축하합니다.

• 지난 12월 26일 경영지원본부 박찬영 주임의 딸 박하은 양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 Congratulations



daughter, Haeun.

• On December 26, 2006, Senior Staff Chanyoun Park, Management Support Division, celebrated the first birthday of his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 축하합니다.

1) 로비(웹개발자, 에코넷 미국 홀딩스)의 아내 멜리사 반 고컴은 12월 29일 새벽 예쁜 딸 휘트니 메이 반 고컴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 안젤리타 레이방(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에코넷 미국 홀딩스)은 1월 1일 예쁜 딸 미아미 아멜리아 알레나 레이방 데이비스를 출산했습니다.

◆ Congratulations



1) Congratulations to Robbie (Web Developer, ECONET USA Holdings) and Melissa Van Gorkom on the birth of their daughter, Whitney Mae Van Gorkom. She was born at 12:05 am December 29, 2006. She was 8 lb 6 oz and 21"



2) Congratulations, Angelita Rabang (Compliance Specialist, ECONET USA Holdings)! Welcome Baby Myami Amelia Alena Rabang Davis born on January 1, 2007 at 2:43pm. She was 7 lbs. 2 1/2oz and 20 inche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 축하합니다.



• 크리스타 힐러리 (물류센터 직원, 유니베라 미국)는 12월 22일 건강한 아들 리암 찰스 힐러리를 출산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 Please welcome Krista Hilleary's (Warehouse Staff, Univera USA) new baby Liam Charles Hilleary. He was born on Friday December 22nd at 2:13 PM. He was 8 lbs 11 oz and 20 inches long.

알로콥 미국 / Aloecorp USA

◆ 축하합니다.

1) 제리 휘게로아(공무팀장, 알로콥 미국)이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녀인 데리아나 리베라는 11월 29일 태어났습니다.

2) 제시카 로페즈(QA/QC 보조, 알로콥 미국)가 11월 18일 에머릭 레알과 결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 Congratulations



weighing 7 lbs 7 oz.

1) Jerry Figueroa (Maintenance Lead , Aloecorp USA) has become a grandpa. Baby Darianna Rivera was born on November 29, 2006, at 9:00 pm



2) Jessica Lopez (QA/QC Assistant, Aloecorp USA) got married on November 18, 2006. The lucky groom is Emeric Leal.

생일자 소식 02 ~ 03

Birthday in February & March

Happy Birthday

에코넷 한국 홀딩스
ECONET Korea Holdings



◆ 3/15 최규남
Kyunam Choi

네이처텍
NatureTech



◆ 2/3 신명신
Mounsin Shin



◆ 2/15 김완수
Wansoo Kim



◆ 2/19 이재란
Jealan Lee



◆ 2/20 박영춘
Youngchun Park



◆ 2/21 김명복
Mounbok Kim



◆ 2/22 조윤희
Yoonhea Cho



◆ 2/27 김상수
Sangsoo Kim



◆ 2/27 이용기
Yongki Lee



◆ 3/3 이충현
Chungheon Lee



◆ 3/4 고은희
Yeunghee Go



◆ 3/11 하승만
Seungman Ha



◆ 3/15 김정희
Jeonghee Kim



◆ 3/19 박승희
Seunghee Park



◆ 3/24 이명자
Mounja Lee



◆ 3/25 박정희
Jeunghee Park



◆ 3/27 김계숙
Kuysook Kim



◆ 3/24 김선녀
Sunlu Kim



◆ 3/30 김경신
Kyungsin Kim



◆ 3/31 정옥화
Ockhoa Joung

유니베라 한국
Univera Korea



◆ 2/7 심규석
Kyusuk Shim

Happy Birthday



◆ 2/11 김경미
Kyungmi Kim



◆ 2/12 황혜정
Hyejeong Hwang



◆ 2/14 조복희
Bokhee Cho



◆ 2/16 이동영
Dongyoung Lee



◆ 2/18 이용재
Youngjae Lee



◆ 2/26 유병용
Byoungyong Yoo



◆ 3/22 표창민
Changmin Pyo

유니베라 미국
Univera USA





◆ 2/5 제니퍼 호록스
Jennifer Horrocks



◆ 2/9 사라 쇼
Sarah Shaw



◆ 2/10 그렉 햄튼
Gregory Hampton
(Memphis Warehouse)



◆ 2/16 올란드 블랜드
Yolanda Bland



◆ 2/27 김승현
Seunghyun Kim



◆ 2/28 이윤진
Yunjin Lee



◆ 3/1 박홍엽
Hongyeop park



◆ 3/3 이재연
Jaeyeon Lee



◆ 3/3 이지민
Jimin Lee



◆ 3/5 이진우
Jinwoo Lee



◆ 2/19 브라이슨 토마스
Bryson Thomas



◆ 3/1 벤자민 메리맨
Benjamin Merryman



◆ 3/12 조엘 패트릭
Joel Patrick



◆ 3/15 리마 암스트롱
Rima Armstrong



◆ 3/18 토미 트립
Tom Tripp



◆ 3/21 캐리 오웬즈
Cary Owens



◆ 3/8 김우진
Woojin Kim



◆ 3/9 민지희
Jihee Min



◆ 3/11 김봉호
Bongho Kim



◆ 3/21 최유진
Yujin Choi

유니젠 한국
Unigen Korea





◆ 2/2 박찬영
Chanyoung Park



◆ 3/23 브룩 브론슨
Brooke Bronson

유니젠 미국
Unigen USA





◆ 2/9 신상현
Sang Sin



◆ 2/28 킴 파머
Kym Farmer



◆ 3/13 제이시 얼리와인
JC Earlywine



◆ 3/18 사샤 네스테로브
Sasha Nesterov



◆ 2/5 김민정
MinJung Kim



◆ 2/9 김동선
Dongseon Kim



◆ 2/16 유재호
Jaeho Yoo



◆ 3/1 손은정
Eunjung Son



◆ 3/2 박경민
Kyeungmin Park



◆ 3/10 송만섭
Manseob Song

에코넷 미국 홀딩스
ECONET USA Holdings





◆ 2/18 레베카 보침
Rebecca Beauchamp



◆ 2/18 제니퍼 김
Jennifer Kim



◆ 3/27 토마스 홀리한
Thomas Hoolihan

알로컴 미국
Aloecorp USA





◆ 2/3 아니따 바우티스타
Anita Bautista



◆ 2/3
블라스 까스띠요
Blas Castillo



◆ 2/7
후안 산띠아고
Juan Santiago



◆ 2/11
루루 뮤노즈
Lulu Munoz



◆ 2/12
알레호 가르시아
Alejo Garcia



◆ 2/14
발렌띠나 에레라
Valentina Herrera



◆ 2/15
웨인 맥쿤
Wayne McCune



◆ 3/29
후안 모로네스
Juan Morones



◆ 2/6
빈센트 레이스
Vincent Reyes



◆ 2/16
레네 델가도
Rene Delgado



◆ 3/13
에드윈 프랭크
Edwin Franke



◆ 3/14
베사니 사이몬
Bethany Simon



◆ 2/16
아르투로 모로네스
Arturo Morones Ornelas



◆ 2/16
줄리안 라라
Julian Lara Martinez



◆ 2/18
에르네스토 살가도
Ernesto Salgado



◆ 2/18
헤수스 메호라도
Jesus Mejora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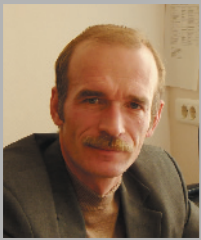
◆ 2/20
알리시아 페레즈
Alicia Perez



◆ 2/28
로사 에스빠에야
Rosa Espriella



◆ 3/19
호세 까티아레즈
Jose Gutierrez



◆ 2/9
시도렌코 브라디미르
페트로비치 Sidorenko
Vladmir Petrovich



◆ 3/18
허영문
Youngmoon Heo



◆ 2/2 란 lan



◆ 3/2
후안 로모
Juan Romo



◆ 3/4
까시미라 세르반떼스
Casimira Cervantes



◆ 3/6
아가피토 아귀레
Agapito Aguirre



◆ 3/7
조 피날레스
Joe Pinales



◆ 3/9
레티시아 고메즈
Leticia Gomez



◆ 3/9
까딸리나 에레라
Catalina Herrera



◆ 2/3 샤론 Sharon



◆ 3/9 맨디 Mandy

Happy Birthday



◆ 3/16
라미로 갈레고스
Ramiro Gallegos



◆ 3/18
안나 램지
Anna Ramsey



◆ 3/22
알후레도 살리나스
Alfredo Salinas



◆ 3/23
낸시 곤잘레스
Nancy Gonzalez



◆ 3/24
시히후레도 크루스
Sigifredo Cruz Mendoza



◆ 3/25
안토니오 카마초 로스트로
Antonio Camacho Rostro

기타 - 사진제출 안하신분들의 생일자 명단입니다.

Misc. - The list of those who had a birthday but did not submit their pictures

► ECONET USA Holdings

- 2/15 게리 다스트럽 Gary Dastrup
- 3/15 이요한 Yohan Lee

► Univera Korea

- 3/7 김정훈 Junghoon Kim

► Univera USA

- 2/17 크리스틴 웬첼 Christine Wentzel
- 2/25 헤더 맥멀론 Heather McMullen
- 3/2 제니퍼 쿠머 Jennifer Kummer

► Unigen USA

- 2/23 제니퍼 호만 Jennifer Homan

► Unigen-Russia & Ubicom

- 3/19 남 비탈리 왈렌티노비치
Nam Vitaly Warentinovich

2007년 새해맞이 사진 콘테스트 당첨자 소개!

새해맞이이라는 주제가 어려웠는지 이번 호에는 응모작이 적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내가 뽑은 베스트 드레서’ 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우수상 노는데 나이가 따로 있나?

가족과 함께 오리건 주의 아스토리아 칼럼을 여행하며 새해 주말을 보냈다. 이 곳에는 콜롬비아강과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38m 높이의 나무로 된 탑이 있는데 우리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나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놀이를 했다.

왼쪽부터 로렌(에드리얼의 약혼자), 터사(언니), 리네, 에드리얼(남동생), 케넌(오빠, 유니베라 미국 근무), 에스더(어머니)
응모한 사람 : 리네 버틀러, 임원보조, 유니젠 미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한 사람: 리네 버틀러, 임원보조, 유니젠 미국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First Prize Winner Never Too Old to Have Fun

My family enjoyed the view from Astoria Column located in Astoria, Oregon on New Year’s Eve Weekend. We also had a balsa wood airplane competition from the top of this 125-feet tower overlooking the Columbia River and the Pacific Ocean.

People in Picture: From Left to Right

Lauren (Linnea’s soon to be sister in law), Tirsa (older sister), Linnea, Adriel (younger brother), Kenan (older brother, Data Entry Clerk, Univera USA), Esther (Mother)

Submitted by Linnea Butler, Administrative Assistant, Unigen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50 will be awarded)

2007 New Year’s Greeting Photo Contest Winners

Unfortunately, only a few people submitted their photos this time. We are sorry that the subject “New Year’s Greetings” has been tough for you. Next time, however, it is going to be about “Best Dresser I Chose,” so please don’t hesitate to send us your fun photos.



우수상 새해 첫 눈

아들 제임슨이 2007년 워싱턴에 처음 내린 눈 속에서 포즈를 취했다. 하얀 눈 속에 있으니 파란 눈 동자가 더 파랗게 보인다. 새해에는 많은 기쁨과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 속 주인공 : 제이미슨 내쉬

응모한 사람 : 데이브 내쉬, 캐나다 판매 및 마케팅 상무보, 유니베라 미국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Second Prize Winner New Year’s First Snow

My son, Jameson, posed in the first snow we had in Washington 2007. His blue eyes look even more blue. Hopefully, the year 2007 will bring a lot of joy and many beautiful moments like we see in this photo. People in Picture: Jameson Nash

Submitted by Dave Nash, Director of Sales and Marketing, Canada , Univera USA
(A gift certificate worth \$100 will be awarded)



아차상1 강아지의 첫 새해맞이!

오지가 워싱턴 커클랜드에서 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새해를 맞고 있는 사진입니다.

응모한 사람 : 사란 펠, 유통 코디네이터, 유니베라 미국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1 Puppy’s first New Year!

Ozzy spent his first New Year with his new family & friends in Kirkland, WA.

Submitted by Sarann Pel, Distribution Coordinator, Univera USA
(A gift set of one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아차상2 여섯달 남았어요!

이라크 타이거강 언덕에 앉아 있는 남편 조의 모습이다. 작년 6월에 갔는데 앞으로 여섯 달만 지나면 보고 싶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응모한 사람 : 제니퍼 호락스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2

Six months down, Six more to go
Joe Horrocks sitting atop a hill above the Tigris River in Iraq.
He has been gone since June '06 and is scheduled to be home June of '07.

Submitted by Jennifer Horrocks
(A gift set of one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Photo Contest



아차상3 안드레아 킬몬

아름다운 영혼과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우리 고객관리팀의 팀장 안드레아 킬몬입니다.

응모한 사람 : 제니퍼 미첼,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생명과학 (베라케어 치약 1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Just Missed Award 3

Andrea Tillmon
She is one of our Team Leads in Customer Care, Andrea Tillmon.
She has a great holiday spirit and great attitude every day.

Submitted by Jennifer Mitchell, Customer Care, Univera Life Sciences
(A gift set of one vera care products will be awarded)



02월호 퀴즈 & 2006.12월호 당첨자 발표

지난 호 퀴즈정답 (작은 사랑의 실천, 작은 사랑에 대한 보답하기, 꿈의 대화, 개인 목적의 정의, 경청, 공감, 친절, ‘꿈을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디자인하기,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계획과 실천, 인내하기, 겸손)

-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상품으로 리니시에 3종세트를 드립니다.)
 - 차경섭, 경영지원본부, 유니젠 한국 • 추명주, 경영지원팀, 유니베라 한국 • 브룩 브론슨, 고객관리팀, 유니베라 미국
- ▶ 알려드립니다.
 - 지난 12월호까지 있었던 베스트 원고상을 없애고 원고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소정에 원고료를 드리기로 하였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12월호 사진공모 이벤트 당첨자 소개는 70pgae에 있습니다.
- ▶ 2007년 4월호에는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 150,000원 상품권 (1명) • 2등 : 100,000원 상품권 (1명) • 3등 : 50,000원 상품권 (1명)

02월호 ECONET Way 퀴즈!

(주)남양의 새로운 마스터 브랜드(Master Brand)로 태어나는 ()은 천연물 제조에 있어 앞선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임을 명확하게 표현한 브랜드 네임이다.

- ▶ 응모하실곳 : kaoh@univera.com

February Quiz and Winners of the December Quiz

Answers to the December 2006 quiz (‘Practicing a little Love’, ‘Returning a Little Love’, ‘Sharing Dreams’, ‘Defining a Persona Core Purpose’, ‘Listening’, ‘Empathy’, ‘Kindness’, ‘Designing a Community Where We All Can Share Purpose, Dreams and Happiness Together’, ‘Making Plans for a Happy Home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Patience’, ‘Modesty’)

- ▶ Winners of the October Quiz (L'initie gift sets will be awarded to the winners.)
 - Kyoungsub cha, Administration Division, Unigen Korea
 - Myungjoo Chu, General Management Team, Univera Korea
 - Brooke Bronson, CSR II , Univera USA
- ▶ Announcement.
 - We have decided to provide writers who submit their pieces to us with a small manuscript fee instead of the ‘Best Manuscript Award’ we awarded until our December issue.
- ▶ Winners of the picture contest in our December issue are announced on page70.
- ▶ Vote to select the ‘best dresser’ in our April 2007 issue.
 - First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50,000 won (1 person) • Secon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100,000 won (1 person)
 - 3rd prize: gift certificate worth 50,000 (1 person)

Quiz for the February issue of ECONET Way

() the name of Namyang Corp’s newly-launched master brand, clearly expresses the company’s status as a world leader with advanced knowledge and cutting-edge technologies in the manufacture of natural botanicals.

- ▶ Please send answers via e-mail (SeanL@econetwest.com)

We strongly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all members of the ECONET family.

ECONET Way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

더욱 사랑 받는 ‘에코넷웨이’ 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kaoh@univera.com

1. 이번 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내용 혹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 에코넷웨이를 통해 소개하고 싶은 소재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에코넷웨이의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Join Us in Making Econet Way

To ensure the continued improvement of Econet Way,
we solicit the valued opinions of our readers. ⇨ SeanL@econetwest.com

1. Which part of this issue did you find the most satisfactory, or the most in need of amendment?
2. If you have any stories or topics you would like to share through Econet Way, submit them freely to our editorial staff.
3. Let us know if there were any typographical errors in Econet Way.

편집실에서 / From the Editor’s Desk

지난 12월 한국 3사와 미국 시애틀에 계신 에코네시안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 해주셨던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감사하며 이번 호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새롭고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사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백 년 만에 맞이하는 정해년(丁亥年) 황금돼지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황금돼지처럼 복되고 밝게 빛나길 바라며 ‘에코넷웨이’를 항상 아껴주시는 에코네시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st December,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Econetians in Seattle and at our three companies in Korea. We thank everyone for their support. In addition, we have revamped this month’s company newsletter according to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We will work hard to constantly improve the newsletter to reflect your needs. 2007 is the year of the golden pig and we hope it will be an auspicious year for everyone. Please follow the Econet Way and have a happy New Year, Econetians.

에코넷웨이에 바란다 / Story Suggestions for ECONET Way

에코네시안 여러분!

작은소식이라도 각 사의 기자분들께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기사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Suggestions for ECONET Way!”

Please e-mail the latest news to your company’s reporter listed below. No matter how trivial the item, your updates will be very helpful in assembling the next issue. We appreciate your participation.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오경아 대리, 비서팀, kaoh@univera.com
Kyoungah Oh, Assistant Manager, Secretary Team

네이처텍 / NatureTech

최순미 대리, 경영기획팀, smchoi@namyangglobal.com
Sunmi Choi, Assistant Manager, Managemnet Planning Team

전영숙, 생산기술팀, et2388@namyangglobal.com
Youngsuk Jun, Production Technology Team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박정아 팀장, 고객지원팀, aloever@univera.com
Jeong Ah Park, Team Manager, Customer Service Tea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최재영 차장, 해외영업팀, jychoi@unigen.net
JaeYoung Choi, Manager, Overseas Sales Team

장미라, 총무인사팀, happycode@unigen.net
Mira Jang, HR & General Affairs Team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이세현, SeanL@econetwest.com
Sean Lee, Executive Administrative Assistant

알로콧 미국 / Aloecorp USA

김수겸 상무, 알로콧 생산관리, joseph@aloecorp.com
Joseph Kim, COO of Aloecorp Operations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손병일 차장, ByungS@econetwest.com
Byung Sohn, Financial Services Manager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신상현 과장, Sangs@upil.com
Sang H. Shin, Account Manager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줄리아, wj20061204@hotmail.com
Julia, HR Manager, Management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허영문 대리, ympost@hanmail.net
Youngmoon Heo, Assistant Manager

네이처텍 / NatureTech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2 ☎ : 365-850
370-92 Yongjeong-Ri, Chopyeong-Myon,
Chinchon-Kun, Chungbuk, 365-850, Korea
Tel : (043)532-5144, Fax : (043)532-5328
www.namyangglobal.com

에코넷 한국 홀딩스 / ECONET Korea Holdings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 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유니베라 한국 / Univera Korea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302-4 에코넷센터 ☎ : 133-120
ECONET CENTER 302- 4, Sungsu-dong 2- ga,
Sungdong- gu, Seoul, Korea
Tel : (02)460-8865, Fax :(02)467-9988
www.univera.com

유니젠 한국 / Unigen Korea

충남 천안시 병천면 송정리 200-1번지 ☎ : 330-863
#200-1, Songjung-Ri, Byeongcheon-Myeon,
Cheonan-Si, Chungnam 330-863, Korea
Tel : (041)529-1510, Fax : (041)529-1599
www.unigen.net

에코넷 미국 홀딩스 / ECONET USA Holding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300, Fax : (360)413-9185

유니베라 미국 / Univera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500, Fax : (360)413-9150
www.universalifesciences.com

유니젠 미국 / Unigen USA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8200, Fax : (360)413-9135
www.unigenpharma.com

알로콧 미국(생산) / Aloecorp USA (Production)

61/2 Miles North of La Villa On FM 491
Lyford, Texas 78569 U.S.A
Tel : (956) 262-2176 Fax : 956-262-8113
www.aloecorp.com

알로콧 미국(영업) / Aloecorp USA (Sales)

2660 Willamette Drive
Lacey, WA 98516
Tel : (360)486-7400, Fax : (360)413-5036
www.aloecorp.com

알로콧 중국, 남양 중국 / Aloecorp China, Namyang China

Room #1108, Haikou International Commercial Centre, No.38,
Datong Road, Haikou, Hainan, China - Zip Code : 570102
Tel : (898)-6674-5400, Fax : (898)6674-3400

유니젠 러시아 / Unigen Russia

103-A 4th Floor, Okeansky Prosect,
Vladivostok, Russia,690002
Tel: 7-4232-42-20-95, Fax : 7-4232-42-13-36

에코넷 가족 / ECONET Family





L'initié

Skin Healing Program - 리니시에